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④	④	①	④	②
6	7	8	9	10
⑤	②	④	①	④
11	12	13	14	15
①	②	②	④	②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③	⑤
21	22	23	24	25
②	①	⑤	②	④
26	27	28	29	30
③	③	③	⑤	③
31	32	33	34	35
⑤	①	⑤	⑤	④
36	37	38	39	40
⑤	③	②	⑤	⑤
41	42	43	44	45
②	①	③	①	⑤
46	47	48	49	50
③	③	①	④	⑤

<1번 오답 해설>

- ③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또 고려 시대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 ⑤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뾰족한 포탄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겉면은 점과 선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데, 또 식기나 기타 의식[의례]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0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 ②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 ③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 ④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 ⑤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④

'계급이 출현한 (가)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환호, 고인돌, 민무늬 토기 등이 울주 검단리 유적에서 발굴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특히 마을의 방어 시설로 보이는 환호는 우리나라의 (가) 시대 유적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둘레가 약 300미터에 달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청동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도랑인 환호(環濠)와 목책, 망루 등은 청동기 시대의 마을 방어 시설[유적]이다. 또 고인돌과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자 토기이다(울주 검단리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 등을 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일종의 청동 거울인, 거친무늬 거울에는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졌다. 초기 철기 시대에는 더욱 세련된 잔무늬 거울이 사용되었다. 일상생활의 화장 도구가 아니라 당시의 통치자 내지 지배 계급의 상징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인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이때에 이르러 철제 농기구도 사용되었다(이로써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만 사용).
- ② (사람들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02 -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

2.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

나라	내용
부여	(가)
고구려	(나)
동예	(다)
삼한	(라)

— <보기> —

ㄱ. (가) -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에서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
 ㄴ. (나) -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동맹이라 하였다.
 ㄷ. (다) -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ㄹ. (라) - 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친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라는 제목 아래 '부여', '고구려', '동예', '삼한'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ㄱ. 무천(舞天)이라는 제천 행사에서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긴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부여 아님). 매년 10월에 열렸으며 공동으로 제사지내고, 높은 산에 올라가 춤과 노래를 즐겼다고 한다.

ㄴ.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동맹(東盟)이라 한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매년 10월에 열렸으며, 동명(東明)이라고도 하였다. 동맹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후한서』 등에 처음 나타난다.

ㄷ. 영고(迎鼓)라는 제천 행사를 열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동예 아님). 매년 12월에 열렸으며 영고는 부여의 국중대회(國中大會)로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수렵 또는 농경의례 성격의 기원제이자 감사제이다.

ㄹ. 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친 10월에 제사(계절제)를 지낸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이상의 <보기>에서 옳은 내용은 'ㄴ과 ㄹ'이다(ㄱ과 ㄷ은 서로 설명 내용이 뒤바뀜).

03 - 백제 성왕

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②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③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④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⑤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정답> ①

맨왼쪽 자료에 '백제 제26대 왕 명농,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1/3). 이어 가운데 자료에는 '웅진에서 사비로 도움을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2/3). 맨오른쪽 자료에는 '구천(관산성 부근)에서 신라의 북병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3/3).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 해당하는 왕은 백제의 제26대 왕인 성왕(재위 523~554)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성왕의 성(姓)은 부여(扶餘)이며, 이름(諱)은 명농(明農)이었다.

성왕은 재위 16년인 538년에 수도를 웅진(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사비(지금의 충남 부여)로 옮겼다(사비 시대 개막). 그리고 이때 국호도 남부여로 고쳤다(백제 멸망 시인 660년까지 사용). 참고로 성왕은 사비 천도 이후 중앙에 22부의 관청을 설치하고(중앙 관제 확대 개편), 수도와 지방 조직을 5부 5방으로 정비하였다(방 아래 10군)(정확한 정비 연도는 모름).

오답 해설>

② 금마저(지금의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왕은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재위 600-641)이다(639, 무왕 40). 참고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무왕 40년인 639년에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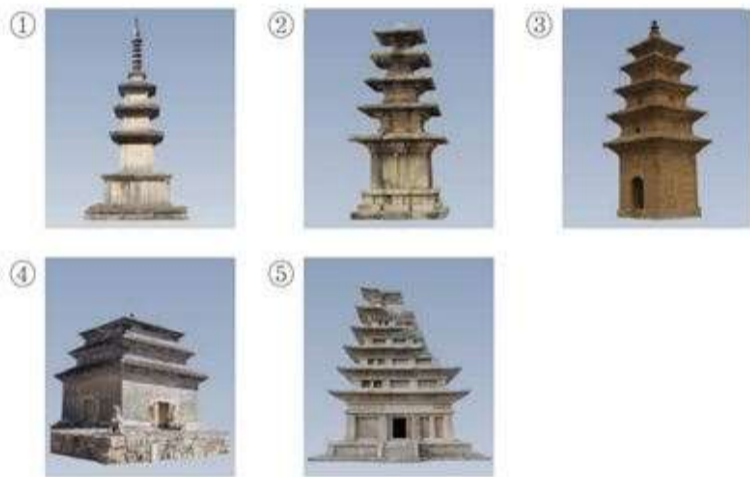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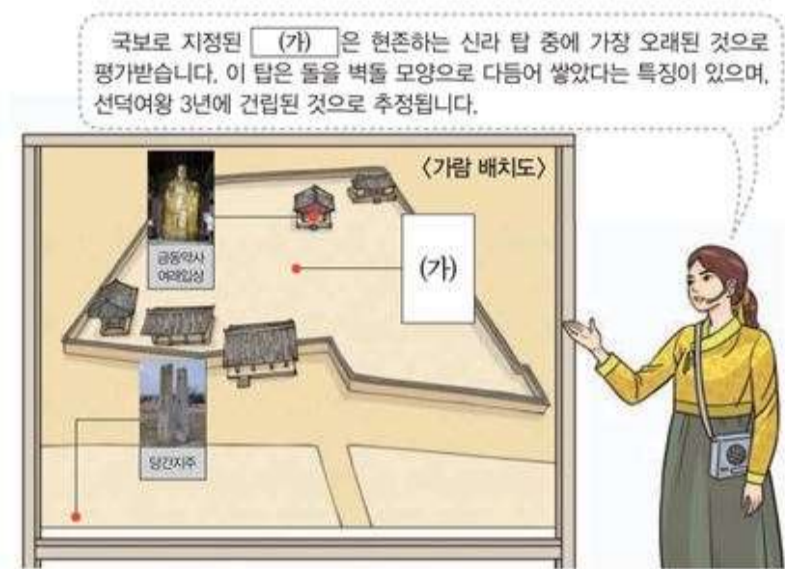
③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 왕은 백제의 제13대 왕인 근초고왕(재위 346-375)이다(375, 근초고왕 30).

④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게 한 왕은 백제의 제31대 왕인 의자왕(재위 641-660)이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으로 당시에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⑤ 동진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왕은 백제의 제15대 왕인 침류왕(재위 384-385)이다(384, 침류왕 원년).

04 -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4.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답 > ④

'국보로 지정된 (가)은 현존하는 신라 탑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선덕 여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가람 배치도>에는 '금동약사여래입상'과 '당간지주'가 사진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삼국 시대 신라의 석탑으로(634, 선덕여왕 3)(국보 제30호),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으며 현재 남아 있는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기단 위 모퉁이에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상이 놓여 있다. 건립 초기에는 9층이었으나 현재는 3층만이 남아 있다.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 즉 석가탑이다. 석가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갖추고 있다(국보 제21호)(751, 통일 신라 경덕왕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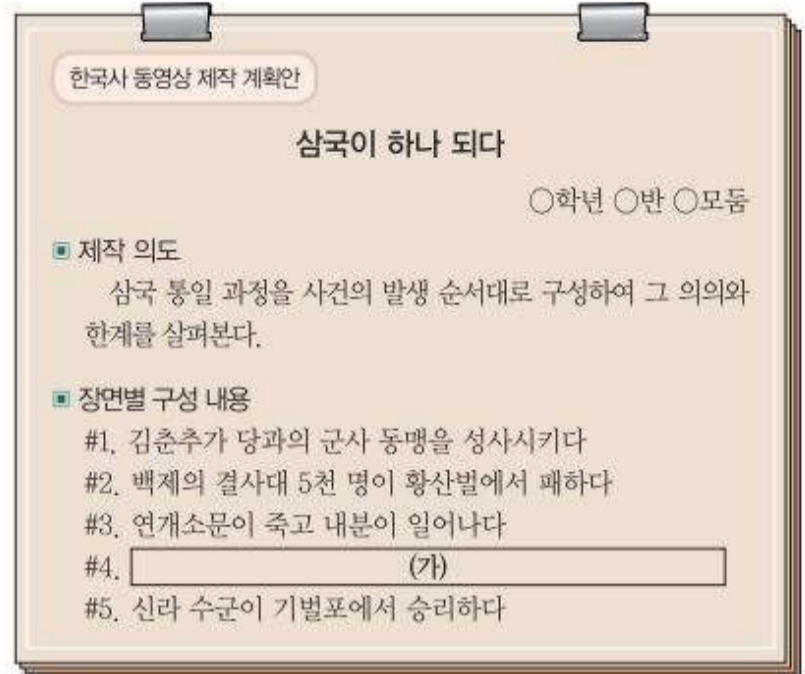
②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7세기). 안정미가 돋보이며 국보 제9호이다.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의 대표적인 탑으로 꼽히고 있다.

③ 발해의 영광탑이다.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서북쪽 탑산에 위치해 있다. 8~10세기에 건립된 발해 시대의 누각식 전탑(모전 석탑)으로 창바이 영광탑 또는 발해 전탑으로도 불린다. 1908년 장평타이라는 청의 관리가 이 탑에 대해 공자 사당의 영광전(靈光殿)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남아 있다고 평한 뒤로 영광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0쪽 19번 아래 추가 해설>

05 - 삼국 통일 과정

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흑치상지가 당의 유인궤에게 항복하다
- ②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하다
- ③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치다
- ④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우다
- ⑤ 개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다

정답 > ②

'삼국이 하나 되다'는 제목 아래 제작 의도로 '삼국 통일 과정을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구성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장면별 구성 내용으로 '#1.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키다', '#2. 백제의 결사대 5천 명이 황산벌에서 패하다', '#3. 연개소문이 죽고 내분이 일어나다', '#4. (가)', '#5. 신라 수군이 기벌포에서 승리하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고구려에서 연개소문(?~665)이 죽고 내분이 일어난 것은 665년경의 일이다. 그리고 신라 수군이 기벌포에서 승리한 것은 676년 11월의 일이다(기벌포 전투, 기벌포 해전).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한 것은 재위 14년인 674년의 일이다. 참고로 안승은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의 아들이다.

오답 해설 >

① [임존성(오늘날 충남 예산 대흥)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 운동을 이끌던] 흑치상지(603?~689)가 당의 유인궤(602~685)에게 항복한 것은 백강 전투(663.9)가 끝난 직후의 일이다. 유인궤는 이후 당에 건너간 후 여러 정벌에 참여해 공을 세웠다(주흥의 무고로 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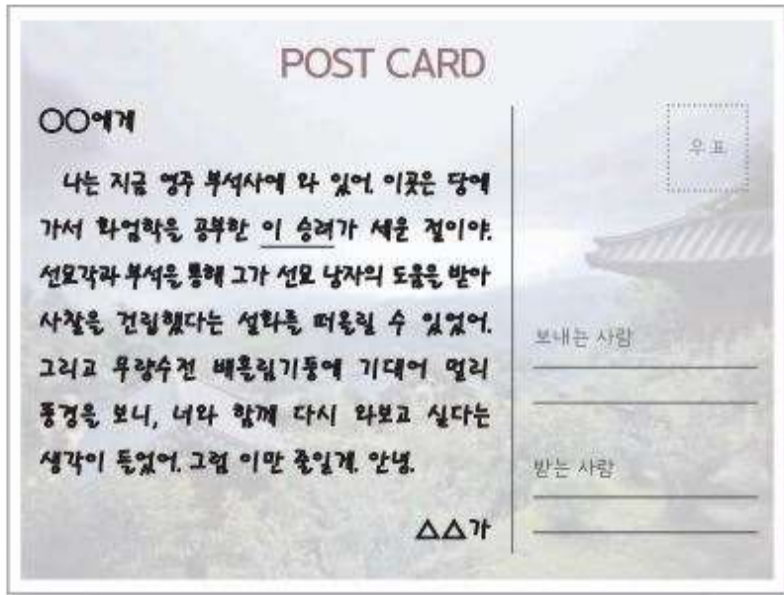
③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살수(지금의 청천강)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한 것은 고구려 영양왕 23년인 612년의 일이다(살수 대첩).

④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운 것은 663년 9월의 일이다(백강 전투). 부여풍은 백제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이다. 풍장(豊璋)이라고도 한다.

⑤ 백제의 개로왕(재위 455-475, 제21대)이 (중국 북조의)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것은 재위 18년인 472년의 일이다. 개로왕이 사신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국서를 북위에 보낸 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427, 고구려 장수왕 15) 남진을 계속 추진하여 백제가 압박을 받은 때문이었다. 475년에 결국 개로왕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도읍인 한성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전사하였다(백제 한성 시대 끝남).

06 - (해동화엄시조)원교국사 의상

6. 밑줄 그은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②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 ③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하였다.
- ④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 ⑤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OO에게' 보내는 엽서가 나와 있다. '나는 지금 영주 부석사에 와 있어. 이곳은 당에 가서 화엄학을 공부한 이 승려가 세운 절이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선묘각과 부석을 통해 그가 선묘 남자의 도움을 받아 사찰을 건립했다는 설화를 떠올릴 수 있었어. 그리고 무량수전 배롱림기둥에 기대어 멀리 풍경을 보니, 너와 함께 닷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이만 줄일게. 안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승려'는 해동 화엄의 시조로 불리는 신라의 원교국사 의상(625-702)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의상이 경북 영주에서 부석사*를 세운 것은 문무왕 16년인 676년의 일이다.

*부석사 창건 설화: 당에 유학했던 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하여 귀국길을 도왔다. 신라에 돌아온 대사는 불법을 전파하는 중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때 선묘룡이 나타나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신하여 절의 지붕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하자 많은 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을 '돌이 공중에 뗏다'는 의미의 부석사(浮石寺)로 불렀다.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한 승려는 곧 의상이다. 관음 신앙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하여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험을 얻고자 하는 신앙으로, 이타구세(利他求世)의 보살 사상, 즉 이타 신앙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신앙이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불교의 보살로 광세음보살, 관세음자재보살, 또는 줄여서 관음보살이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 ①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승려는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이다(643, 선덕 여왕 12).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
- ② 무애가를 지어 정도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노력한 승려는 통일 신라 시대의 고승, 화쟁국사 원효(617~680)이다. 원효는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 ③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 인왕경소 등을 저술한 인물은 신라의 고승 원측(613~696)이다. 원측은 중국의 삼장법사 현장(602~664)에게서 유식학(唯識學)을 배운 후 자신만의 독자적인 유식 사상 체계를 수립하였다(중국에서 활동). <10쪽 19번 아래 추가 해설>

07 - (통일) 신라 신문왕의 업적

7.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③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를 창설하였다.
- ④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정답> ②

'대왕암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경주 이견대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선왕을 기리며 감은사를 완공한 (가)은/는 이곳에서 용을 만나는 신묘한 일을 겪었고, 이를 통해 검은 옥대와 만파식적*의 재료가 된 대나무를 얻었다고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삼국 통일을 이룬 후 나라를 더욱 굳게 지키기 위해 신라 문무왕은 감은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감은사를 완공한 것은 그의 아들인 신문왕 대(재위 681-692, 제31대)의 일이다(682, 신문왕 2).

*삼국유사에 기록된 만파식적 설화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용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금·옥으로 보답하고, 사람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나오자, 산과 용은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왕이 감은사에서 유숙하고 …… 행사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에 보관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을 때 비가 오고 비울 때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평온해졌다. 이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여기서 '용(龍)'은 신라의 제30대 왕인 문무왕(재위 661-681)이고, '왕'은 제31대 왕인 신문왕(재위 681-692)을 가리킨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흩어져 있던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의 마음(민심)을 통합해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는 호국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신문왕 7년인 687년이고, 녹읍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 9년인 68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한 것은 신라 진성 여왕 2년인 888년의 일이다. 각간(角干) 위홍(魏弘)(?~888)과 대구화상(大矩和尚)(?~?)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 ③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를 창설한 것은 신라 진평왕 3년인 581년의 일이다. 참고로 진평왕은 영객부도 처음 설치하였다(621, 진평왕 43). 위화부는 관리의 인사를 담당할 일종의 '이부'이고, 영객부는 외국 사신의 접대를 담당할 기관이다(삼국 통일 후 신라는 중앙 관제로 13부를 둬).
- ④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신라 법흥왕 대(재위 514-540, 제23대)의 일이다(536, 법흥왕 23).
- ⑤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한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08 - (통일) 신라 하대의 왕위 쟁탈전

8.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찬 김지정이 반역하여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침범하였다. 여름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양상 등이 왕의 시호를 해공왕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 ①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 ②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③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하였다.
- ④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다.
- ⑤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정답> ④

"이찬 김지정이 반역하여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침범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름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양상 등이 왕의 시호를 해공왕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왕족인 아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해공왕 16년인 780년으로 이때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 등의 반격으로 주살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공왕(재위 765-780, 제36대)이 피살되었다. 그리고 해공왕 피살 이후부터 신라는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상대등 김양상이 이후 왕위에 올라 신라의 제37대 왕인 선덕왕(재위 780-785)이 되었으며, 이찬 김경신이 그 뒤를 이어 제38대 왕인 원성왕(재위 785-798)이 되었다.

해상왕 장보고(?~846)가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다가 피살된 것은 9세기 중반인 846년의 일이다.

*836년 흥덕왕(재위 826-836, 제42대)이 죽은 뒤에 신라에서는 왕의 사촌인 김균정과 조카인 김제룡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김균정이 살해되고 김제룡이 희강왕(재위 836~838, 제43대)으로 즉위하였다. 그러자 김균정의 아들인 김우징(이후 신무왕)이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장보고에게 의탁하였다. 838년 상대등 김명이 희강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민애왕(재위 838~839), 제44대), 김양 등이 병사를 모아 청해진으로 김우징을 찾아와 군사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839년 장보고는 김우징, 김양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민애왕을 죽이고 김우징을 왕으로 추대하였다(신무왕(재위 839), 제45대)(피살된 김균정의 아들이 비로소 왕이 된 것). 이 공으로 장보고는 신무왕으로부터 감의군사로 임명되었는데, 신무왕은 왕위에 오른 지 4개월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인 문성왕(재위 839~857, 제46대)이 왕위에 올랐다. 문성왕이 즉위한 뒤 장보고는 진해장군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845년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둘째 왕비로 보내려 했으나 중앙의 귀족들이 섬사람(海島人)의 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장보고는 청해진에 응거하여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846년(문성왕 8)에 문성왕은 염장을 자객으로 보내 장보고를 살해하였다. 851년(문성왕 13)에는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벽골군(碧骨郡)으로 이주시켰다(청해진 폐쇄, 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오답 해설>

- ① (신무왕의 장인인) 김흠돌(?~681)이 반란을 도모하다 진압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의 일이다.
- ②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12쪽 23번 아래 추가 해설>

09 - 발해

9.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글은 양태사가 지은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라는 한시로, 정효 공주 묘지(墓誌) 등과 함께 (가)의 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시에는 문왕 때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그가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리 기운 가득한 하늘에 달빛 비치니 은하수도 밝은데
나그네 돌아갈 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홀로 앉아 지새는 긴긴 밤 근심에 젖어 마음 아픈데
홀연히 들리누나 이웃집 아낙네 다듬이질 소리
바람결에 그 소리 끊기는 듯 이어지는 듯
밤 깊어 별빛 기우는데 잠시도 쉬지 않네
나라 떠나온 뒤로 아무 소리 듣지 못하더니
이제 타향에서 고향 소리 듣는구나
⋮



- ①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 ②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마련하였다.
- ③ 정사암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 ④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⑤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정답> ①

"이 글은 양태사가 지은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라는 한시로, 정효 공주 묘지(墓誌) 등과 함께 (가)의 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시에는 문왕 때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그가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서리 기운 가득한 하늘에 달빛 비치니 은하수도 밝은데/나그네 돌아갈 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홀로 앉아 지새는 긴긴 밤 근심에 젖어 마음 아픈데/홀연히 들리누나 이웃집 아낙네 다듬이질 소리/바람결에 그 소리 끊기는 듯 이어지는 듯/밤 깊어 별빛 기우는데 잠시도 쉬지 않네/나라 떠나온 뒤로 아무 소리 듣지 못하더니/이제 타향에서 고향 소리 듣는구나 …). 758년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발해국인 양태사(?~?)가 지은 한시이다(759, 발해 문왕 23)[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참고로 일본에서 편찬된 경국집(經國集)이라는 한시집에 전한다.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한 국가는 발해이다(발해의 최고 교육 기관)(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 교육).

오답 해설>

- ②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마련한 국가는 신라이다. 6두품은 6관등인 아찬까지, 5두품은 10관등인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진골은 제한 없이 모든 관등에 오를 수 있었다.
- ③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 요컨대 재상 선출과 관련 사안을 논의한 국가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에서 정사암 회의 열림).
- ④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788, 원성왕 4).
- ⑤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한 국가는 고려이다(1116, 예종 11). 청연각은 경서(經書)를 강론하며, 임금에게 진강하는 등 문예와 예악으로써 유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일종의 궁중 도서관이다. 또 보문각은 청연각이 궁중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출입과 숙직이 불편하다 하여 따로 설치한 문한 관서로, 경연과 장서(藏書)를 맡아 보던 관청이다.

10 - 후삼국 통일 전쟁

10.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파진찬 신덕, 영순 등이 신검에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도록 권하였다. 신검이 대왕을 자칭하고 국내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교서에서 이르기를, “…… 왕위를 어리석은 아이에게 줄 뻔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상제께서 진정한 마음을 내리시니 군자들이 허물을 고쳤고 만아들인 나에게 명하여 이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점이다. ……” 라고 하였다.

- ① 궁예가 광평성을 설치하였다.
- ②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③ 신승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④ 왕건이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김현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정답> ④

'파진찬 신덕, 영순 등이 신검에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도록 권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신검이 대왕을 자칭하고 국내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교서에서 이르기를, …… 왕위를 어리석은 아이에게 줄 뻔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상제께서 진정한 마음을 내리시니 군자들이 허물을 고쳤고 만아들인 나에게 명하여 이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점이다. …… 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재위 900-935, 제1대)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아들 신검(재위 935-936, 제2대)에 의해 전복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金山寺)에 유폐되었다가(935.3-6). 탈출한 후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한 것은 935년(고려 태조 18) 6월의 일이다.

*금강(?~935): 후백제의 건국자 견훤의 넷째 아들이다. 체구가 매우 크고 지략이 많아 견훤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그의 형들인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시기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877~943)은 936년 9월에 벌어진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 신검(재위 935-936, 제2대)의 군대를 물리쳤다. 일리천은 지금의 경북 구미 지역이다.

오답 해설>

- ① (후고구려의) 궁예(?~918)가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을 설치한 것은 904년의 일이다.
- ②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당의 등주[산둥 반도]를 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 14년인 732년의 일이다.
- ③ 고려의 김락(?~927)과 신승겸 장군(?~927)이 고려와 후백제 간에 벌어진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927년의 일이다(927.9). 공산은 지금의 대구 팔공산 일대로, 이때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대파하였다.
- ⑤ (웅천주 도독) 김현창(?~822)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신라 헌덕왕 14년인 822년의 일이다[헌덕왕(재위 809-826, 제41대). 김현창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자 김주원(?~?)의 아들이다. 부친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웅천주(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난을 일으키고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으로 정하였다.

11 - 고려 광종이 추진한 정책

11.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한국사 묻고 답하기 조회 수: 123

고려 시대 연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질문 고려는 중국의 연호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 다른 연호를 쓴 사례가 있나요?
 답변
 ↳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후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 (가)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라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 ①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 ②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 ③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④ 삼국사기 편찬을 명령하였다.
- ⑤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①

'고려 시대 연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는 제목 아래 '고려는 중국의 연호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 다른 연호를 쓴 사례가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답변으로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후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와 '(가)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라 칭하기도 하였습니다'는 답변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왕'은 고려의 제4대 국왕인 광종(재위 949-975)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고려 광종은 즉위년(949)에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였고[재위 4년인 953년까지 사용], 이후 중국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재위 11년인 960년에 이르러 다시 '준풍(峻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광종 14년인 963년에 중국 송과 국교를 연 후에는 송의 연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자국의 연호[준풍]를 폐지하였다. [백관의 공복(公服)을 등급에 따라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皇都)라 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라 칭한 것은 광종 11년(960)의 일이다.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가 시행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처음 설치한 왕은 고려 태조(재위 918-943)이다(918, 고려 태조 원년).
- ③ 전시과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왕은 고려의 제5대 국왕인 경종(재위 975-981)이다(976, 경종 원년)(시정 전시과). 목종 원년인 998년에 개정 전시과가, 다시 문종 30년인 1076년에 또다시 경정 전시과(전시과의 완성)가 시행되었다.
- ④ [김부식(1075~1151)에게] 삼국사기 편찬을 명령한 왕은 고려의 제17대 국왕인 인종(재위 1122-1146)이다(1145, 고려 인종 23). 삼국사기는 기전체** 사서로 본기 28권, 연표 3권, 지(志) 9권, 열전 10권으로 구성되었다.

**기전체: 20번 정답 해설 참고

- ⑤ 12목에 지방관[목사, 외관]을 파견한 왕은 고려의 제6대 국왕인 성종(재위 981-997)이다(983, 성종 2).

12 - 고려 현종 대의 사실

12.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역사 연극 시나리오 구상〉

제목: (가)의 험난한 피란길
○학년 ○반 ○모둠

장면1: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한 거란군이 서경까지 이르자 강감찬이 왕에게 남쪽으로 피란할 것을 권유한다.

장면2: 왕이 개경을 떠나 전라도 삼례에 이르는 동안 호위군이 도망가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장면3: 나주에 도착한 왕은 강화가 성립되어 거란군이 물러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한다.

- ①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 ②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 ③ 사신 저고여가 귀국 길에 피살되었다.
- ④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 ⑤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답> ②

'제목 (가)의 험난한 피란길'이라는 제목 아래 장면 1에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한 거란군이 서경까지 이르자 강감찬이 왕에게 남쪽으로 피란할 것을 권유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장면 2에는 '왕이 개경을 떠나 전라도 삼례에 이르는 동안 호위군이 도망가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 장면 3에는 '나주에 도착한 왕은 강화가 성립되어 거란군이 물러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서북면도순검사 강조(?~1010)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1009)을 제거하고 목종(재위 997-1009, 제7대)까지 폐위·시해하고 현종(재위 1009-1031, 제8대)을 옹립한 것은 1009년의 일이다(강조의 정변). 그리고 강조의 정변은 거란 침입의 빌미가 되어 거란은 현종 2년인 1011년에 제2차 침입을 하였다. 이때 국왕 현종이 전라도 나주까지 피란을 갔다.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한 것은 거란의 제2차 침입 시이다.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부터 고려 선종 4년인 1087년까지 조판하였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완료 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다(1232, 고종 19).

오답 해설>

① (거란을 배척한) 만부교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려 태조 25년인 942년의 일이다.

*만부교 사건: 거란에서 보내온 낙타 50필을 개경의 만부교 아래에 매어놓아 굶어 죽게 한 사건이다.

③ 몽골 사신 저고여(?~1225)가 귀국길에 피살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④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

⑤ 신돈(?~1371)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전민변정도감** 설치, 신돈이 스스로 책임자인 판사가 됨).

<7쪽 13번 아래 추가 해설>

13 - 최충헌의 활동

13.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가)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명종의 퇴위와 신종의 즉위에 관여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①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 ② 교정도감을 두어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 ③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 항쟁을 펼쳤다.
- ④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 ⑤ 후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훈요 10조를 남겼다.

정답> ②

'이것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가)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명종의 퇴위와 신종의 즉위에 관여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최충헌(집권 1196-1219, 집권 1196-1219)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최충헌은 이의민을 축출하고 집권한 직후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1196, 명종 26).

최충헌은 희종 5년인 1209년에 국정 총괄 기구로 교정도감을 두어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집권자인 최우에 의해) 처음 설치된 것은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이후 정방은 충선왕과 충목왕, 공민왕 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고려 창왕 즉위년인 1388년에 폐지되었다.

③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 항쟁을 펼친 인물은 배중손(?~1271)이다[1270년(원종 11) 6월에서 1271년 5월까지](용장산성). 이후 삼별초는 제주도로 건너가 1271년(원종 12) 5월에서 1273년(원종 14) 6월까지 김통정(?~1273)의 지휘로 항전하였다(항파두리성).

④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한 인물은 최무선(1325~1395)이다(1377, 우왕 3).

⑤ 후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훈요 10조를 남긴 것은 고려 태조(재위 918-943)이다(943, 태조 26). 후대 임금이 명심해야 할 사항을 일종의 유언으로 제시한 것으로, 신서 10조(信書十條), 십훈(十訓)이라고도 한다.

<12번 오답 해설>

**전민변정도감: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14 - 묘청의 난

1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윤관이 포로 346구와 말 96필, 소 300여 마리를 바쳤다. 의주와 통태진·평용진에 성을 쌓고, 함주·영주·웅주·길주·복주, 공험진과 함께 북계 9성이라 하였다.

(나) 그해 12월 16일에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적과 싸우던 중 화살로 적의 괴수인 살리타를 쏘아 죽였습니다. 사로잡은 자들이 많았으며 나머지 무리는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 ①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
- ②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③ 이세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유하였다.
- ④ 묘청 등이 칭제 건원과 금 정벌을 주장하였다.
- 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정답> ④

(가)에 '윤관이 포로 346구와 말 96필, 소 300여 마리를 바쳤다. 의주와 통태진·평용진에 성을 쌓고, 함주·영주·웅주·길주·복주, 공험진과 함께 북계 9성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관(1040~1111)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물리친 후 동북 9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나)에는 '그해 12월 16일에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적과 싸우던 중 화살로 적의 괴수인 살리타를 쏘아 죽였습니다. 사로잡은 자들이 많았으며 나머지 무리는 무너져 흩어졌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의 적장 살리타(?~1232)를 사살하면서 전투에 승리한 것은 몽골의 제2차 침입 시인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처인성 전투)(처인부곡의 향전). 처인성은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다.

묘청(?~1135) 등이 칭제 건원과 금 정벌을 주장한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묘청의 난).

오답 해설>

- ① (거란의)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한 것은 정종 2년인 947년의 일이다.
- ② 문신 서희(942~998)가 거란의 적장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거란의 제1차 침입 시).
- ③ 익재[역용] 이세현(1287~1367)이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유한 것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의 일이다. 만권당은 (상왕이 된 충선왕에 의해) 원의 연경[지금의 북경]에 세워졌다.
- 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덕종 2년(1033)에서 정종 10년(1044)까지의 일이다. 참고로 삼국 시대에도 고구려에서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고구려 영류왕 14년(631)~보장왕 7년(647)].

15 - 정동행성 설치

15.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시중 김방경과 대장군 인공수를 [상국(上國)에] 파견하여 표문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근래 역적을 소탕하는 대군에 군량을 공급하는 일로 이미 해마다 백성에게서 양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는 데 장정들이 모두 징발되었고 노약자들만 겨우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삼전도비가 건립된 계기를 찾아본다.
- ②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 ③ 사심관 제도가 시행된 원인을 조사한다.
- ④ 조위총의 난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 ⑤ 권수정혜결사문이 작성된 목적을 파악한다.

정답> ②

'시중 김방경과 대장군 인공수를 [상국(上國)에] 파견하여 표문을 올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근래 역적을 소탕하는 대군에 군량을 공급하는 일로 이미 해마다 백성에게서 양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는 데 장정들이 모두 징발되었고 노약자들만 겨우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 군대에 군량을 공급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황제 [원 세조]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고려사절요』 충렬왕 원년 1월 8일자(음력) 기록이다. 고려의 무신 김방경(1212~1300)이 중군장으로 몽골군과 함께 일본 원정에 나선 것은 고려 충렬왕 즉위년인 1274년 10월(음력)의 일이고(제1차 일본 원정), 고려군 도원수의 자격으로 종군한 것은 충렬왕 7년인 1281년 5월~윤7월(음력)의 일이다(두 차례의 일본 원정은 태풍으로 모두 실패).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된 것은 충렬왕 6년인 1280년의 일이다. 정동행성의 정식 명칭은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으로, 여기서 '정동'은 일본 정벌을 뜻하고, '행중서성'은 중앙 정부 기관인 (원) 중서성의 지방 파견 기관을 뜻한다.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삼전도비가 건립된 것은 병자호란 때 조선(인조)이 청(태종)에게 항복하였기 때문이다(1639, 인조 17). 청 태종은 조선 인조의 항복을 받고 귀환하면서 삼전도(오늘날의 서울 송파)에 삼전도비를 건립할 것을 명하였다. 삼전도비가 건립된 것은 인조 17년인 1639년 12월로 제액*은 '대청황제공덕비'이다.
- *제액(題額): 비신의 상단부나 이수[비신의 머릿돌]에 비의 명칭을 새긴 부분
- ③ 사심관 제도가 시행된 것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재위 927~935, 제56대, 김부)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면서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이다(935). 사심관이란 지방에 연고가 있는 중앙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정확하게는 감독하도록 임명한 특수 관직으로 지방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부여한 것이다.
- ④ (서경 유수) 조위총(?~1176)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이익방 등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자 난을 일으킨 것은 고려 명종 4년인 1174년의 일이다(~1176(명종 6)).
- ⑤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한 인물은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1190, 고려 명종 20).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결의하였다. 먼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행자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한 다음, 정혜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16 - 논산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

16. 밑줄 그은 '불상'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③

'이것은 이색의 목은집에 실린 시의 일부입니다. 그는 관촉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보았던 불상을 떠올리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은 시로 '한산의 동쪽으로 백여 리쯤 되는 곳에/은진현이라 그 안에 관촉사*가 있다네/여기엔 크나큰 석상 미륵존이 있으니/내 나간다 나간다며 땅속에서 솟았다네 ...'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불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고려 광종 대),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고 인정받아 2018년에 국보 제323호*로 승격되었다. '은진 미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관촉사: 현재의 관촉사

오답 해설>

①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이다(보물 제93호)*. 천연암벽을 적절히 활용하여 불신(佛身)을 표현하였다. 불두(佛頭)는 따로 만들어 얹었다. 왼쪽의 마애불은 등근 갓을 쓰고 왼손을 어깨높이로,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연꽃 줄기를 붙잡고 있다(미륵으로 추정). 오른쪽의 마애불에서는 네모난 갓을 쓰고 합장하고 있다. 옷자락의 흐름이 바위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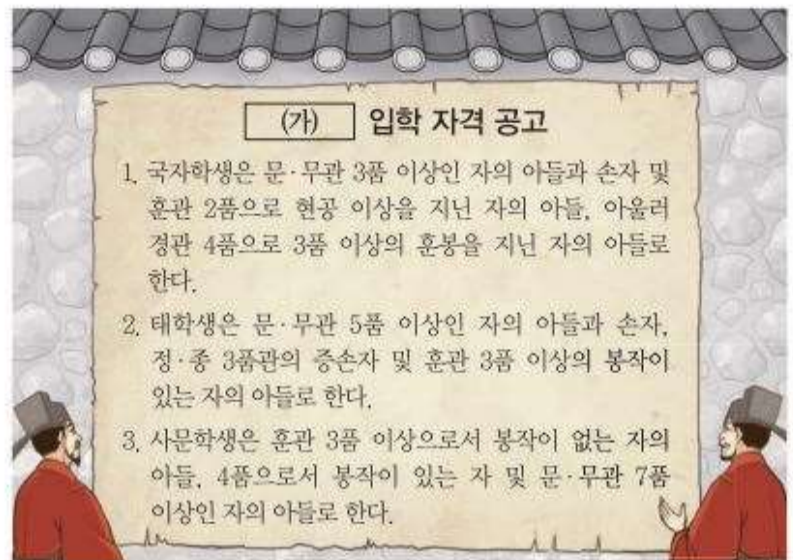
② 경주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 좌상이다(보물 제431호)*. 통일 신라의 불상으로, 머리 위에 갓 모양의 모자가 얹혀 있어 이른바 '갓바위 불상'이라고도 불린다.

④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이다(국보 제84호)*. 등근 얼굴 윤곽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 '백제의 미소'로 불린다(서산 마애 삼존불). 삼국 시대인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중국을 오가던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교통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의 가야산 절벽에 새겨져 있으며 '서산 마애 석불' 또는 '운산 마애 석불'이라고도 부른다.

<14쪽 26번 아래 추가 해설>

17 - 고려의 국자감

17. (가)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 ②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 ③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 ④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양현고가 설립되었다.
- ⑤ 사가독서제를 시행하여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다.

정답> ④

'(가) 입학 자격 공고'라는 제목 아래 '1. 국자학생은 문·무관 3품 이상인 자의 아들과 손자 및 훈관 2품으로 현공** 이상을 지닌 자의 아들, 아울러 경관* 4품으로 3품 이상의 훈봉*을 지닌 자의 아들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 태학생은 문·무관 5품 이상인 자의 아들과 손자, 정·종 3품관의 증손자 및 훈관 3품 이상의 봉작*이 있는 자의 아들로 한다', '3. 사문학생은 훈관 3품 이상으로서 봉작이 없는 자의 아들, 4품으로서 봉작이 있는 자 및 문·무관 7품 이상인 자의 아들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는 고려 인종 대(재위 1122~1146, 제17대)에 이루어진 국자감의 학식(學式) 제정과 관련된 것으로(학식 중 입학 자격 규정)(인종 11년인 1133년 전후로 추정), 인조는 일종의 학칙인 학식을 제정하고 국자감 운영을 크게 바꾸었는데, 그동안 형부(刑部)에서 담당하던 율학(律學)을 국자감으로 옮겨 경사 6학(국자학·태학·사문학·율학·서학·산학)을 정비하였다. 공부 범위가 크게 넓혀진 만큼 국자감의 활동 영역이 커진 것이며, 이로써 국자감의 위상이 높아졌다.

*훈관(勳官)은 훈공(勳功), 즉 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로 받은 벼슬로, 작호(爵號)만 있고 직무상의 일이 없던 벼슬을 가리킨다. 경관(京官)은 중앙의 관아에 소속된 관직, 또는 중앙 관청을 가리킨다. 주로 지방관에 대하여 구별하여 이렇게 불렀다(고려 시대의 경우 중앙의 관아와 서경(西京)·동경(東京)·남경(南京) 유수(留守)가 경관직을 겸임하였다). 훈봉(勳封)은 훈공(勳功)에 따른 봉군(封君)·봉작(封爵) 등에 관한 일을 뜻한다. 봉작(封爵)이란 왕자·외척·공신에게 공·후·백·자·남의 작을 봉해주던 제도를 가리킨다.

**현공(縣公): 한국사에서 문헌상 상 작위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것은 고려 문종 대부터이다. 고려는 중국의 5등작제인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을 근본으로 하되 이를 8등작제로 확대하였다. 즉, 공·후·국공(國公)·군공(郡公)·현후(縣侯)·현백(縣伯)·개국자(開國子)·현남(縣男)이라 하여 중국 5등작제의 명칭을 따되 후(侯)와 백(伯) 사이에 국공·군공·현후라는 행정 구역의 명칭이 따른 세 작위를 추가하였다.

국자감과 같은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일종의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관학 진흥책). 참고로 예종은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도 두어 운영하였다(1109, 고려 예종 4).

오답 해설>

①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한 교육 기관은 최충(984~1068)이 세운 9재 학당이다(1055, 고려 문종 9). 그리고 9재 학당과 이를 본받은 사학 12도가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이중 11개가 도입된 개경에 설치).

<14쪽 26번 아래 추가 해설>

18 -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

18. ㉠~㉣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역사 돋보기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이자겸의 출세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이자겸은 1108년 둘째 딸이 예종의 비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출세하였다.

1109년 ㉠추밀원(중추원) 부사, 1111년 ㉡어사대의 대부가 된다. 1113년에는 ㉢상서성의 좌복야에 임명되었고, 1118년 재신으로서 판이부사를 맡았으며, 1122년 ㉣중서문하성 중서령에 오른다.

— <보기> —

ㄱ. ㉠ -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ㄴ. ㉡ -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ㄷ. ㉢ - 화폐·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ㄹ. ㉣ -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이자겸의 출세'라는 제목 아래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이자겸은 1108년 둘째 딸이 예종의 비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출세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109년 추밀원(중추원) 부사[정3품], 1111년 어사대의 대부[정3품]가 된다. 1113년에는 상서성의 좌복야[정2품]에 임명되었고, 1118년 재신으로서 판이부사[정3품]를 맡았으며, 1122년 중서문하성 중서령[정1품]에 오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ㄱ.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한 고려의 기구는 추밀원*(중추원)이다. 이 기구의 고위 관원(즉 2품 이상의 추신(추밀))은 중서문하성의 재신(2품 이상)과 함께 도병마사에 참여하여 국방과 국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추밀원: 중추원의 후신으로, 고려 숙종 즉위년인 1095년에 중추원을 추밀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ㄴ.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한 고려의 기구는 어사대이다. 즉 어사대의 소속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을 이루어) 언론권(서경권, 간쟁권, 봉박권)을 행사하였다.

ㄷ. 화폐·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한 고려의 기구는 삼사(三司)이다. 상서성은 중서문하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ㄹ.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고려의 기구는 (국방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이다.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것은 (원 간섭기인) 충렬왕 5년인 1279년의 일이다(일종의 관제 격하). 도병마사를 일명 도당(都堂)이라고 하였다. 중서문하성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 관서이다.

이상의 <보기>에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19 - 명의 철령위 설치 주장과 요동 정벌

19.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명 황제가 말하기를, "철령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開元路)*가 관할하던 군민(軍民)이 속하던 곳이니, 한인·여진인·달달인·고려인을 그대로 요동에 소속시켜라."라고 하였다. 왕은 최영과 함께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사냥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쪽으로 해주에 행차하였다.

*개원로(開元路): 원이 설치한 행정 구역

	(가)	(나)	(다)	(라)	(마)
1351	1359	1380	1391	1394	1400
공민왕 즉위	홍건적 침입	황산 대첩	과전법 실시	한양 천도	태종 즉위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명 황제가 말하기를, 철령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開元路)가 관할하던 군민(軍民)이 속하던 곳이니, 한인·여진인·달달인·고려인을 그대로 요동에 소속시켜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은 최영과 함께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사냥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쪽으로 해주에 행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우왕 13년인 1387년 12월에 명 태조 주원장(재위 1368-1398)이 우왕에게 국서를 보내 통보한 사실이다. 이른바 명의 철령위 설치 주장으로, 이에 반발한 우왕과 최영이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이성계(1335~1408)가 이끄는 요동 정벌군이 서경(지금의 평양)에서 출발한 것은 우왕 14년인 1388년 음력 4월 18일의 일이다

*개원로(開元路): 원이 설치한 행정 구역

명의 철령위 설치 주장과 이에 반발한 고려의 요동 정벌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황산 대첩이 일어난 1380년과 과전법이 실시된 1391년 사이인 '(다) 시기'에 해당한다.

<4번 오답 해설>

⑤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639, 무왕 40). 백제 무왕 때 세운 미륵사에 조성된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석탑의 복원 공사 중에 사리 장엄구와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다. 2018년 6월에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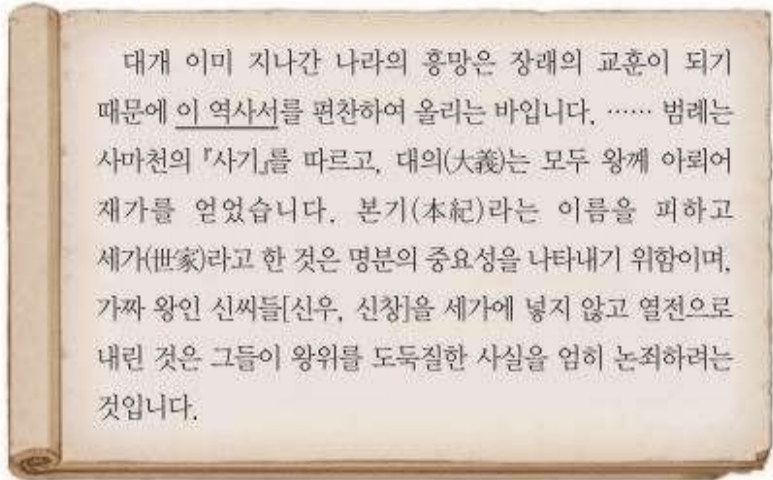
*사리 장엄구와 사리 봉영기: 사리 장엄구란 사리(舍利) 즉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보호하거나 장엄(엄숙하게 꾸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용기를 말하고, 사리 봉안기란 사리를 봉안하는 내력을 적은 글을 말한다. 사리 봉안기에는 사리 공양을 위한 석탑의 조성 과정이나 사찰의 창건 배경도 기록되어 있다.

<6번 오답 해설>

④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편찬한 승려는 고려 고종 대의 화엄종 승려, 각훈(?~?)이다(1215, 고종 2).

20 - 고려사

20. 밑줄 그은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하였다.
- ②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 ③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④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 ⑤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답> ⑤

'대개 이미 지나간 나라의 흥망은 장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르고, 대의(大義)는 모두 왕께 아뢰어 재가를 얻었습니다. 본기(本紀)라는 이름을 피하고 세가(世家)라고 한 것은 명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가짜 왕인 신씨들[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린 것은 그들이 왕위를 도둑질한 사실을 엄히 논죄하려는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문종 원년(1451)에 편찬된 기전체* 사서인 『고려사』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451.8)【편찬 책임자인 정인지(1396~1478) 등이 쓴 서문, 즉 '고려사를 바치는 글'[進高麗史箋](일부)]. 참고로 이듬해인 문종 2년(1452)에 편찬된 『고려사절요』는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고려사』 139권 75책 목판본이 2021년 2월 17일자로 보물 제2115-4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사』에서는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기전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할 때 본기(本紀)·세가(世家)·열전(列傳)·지(志)·연표(年表) 등으로 구성하는 역사 서술 체제를 가리킨다(가장 중요한 '기'와 '전'의 이름을 따서 기전체라 함). 중국 전한의 역사가 사마천(기원전 145?~기원전 86?)이 쓴 『사기(史記)』에서 비롯되었다(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를 서술하는 기본 체제가 됨). '기(紀)'는 제왕의 정치와 행적을 중심으로 역대 왕조의 변천을 편년체로 서술한 것이고, '세가(世家)'는 제후국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다. 또 '전(傳)'은 열전으로 각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고, '지(志)'는 제례나 천문, 경제, 법률 등 문물과 제도에 관해 항목별로 연혁과 변천을 기록한 일종의 문화사나 제도사이다. 마지막으로 '표(表)'는 각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연표로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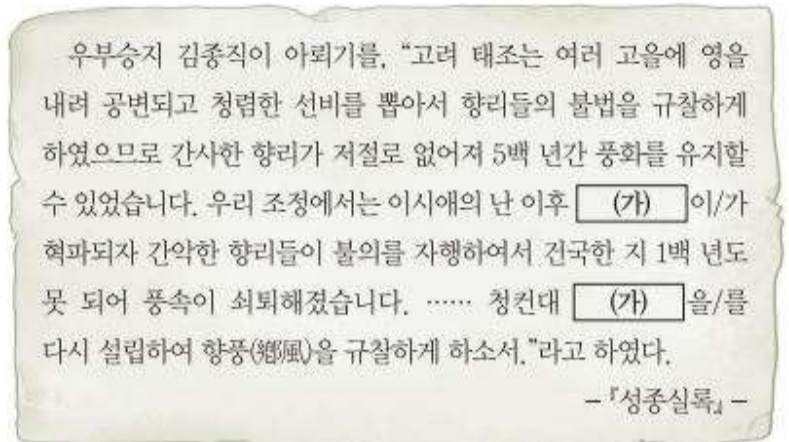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한 역사서는 영재 유득공(1748~1807)이 저술한 『발해고』이다(1784, 조선 정조 8).
- ②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장편) 서사시로 표현된 역사서는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이규보(1168~1241)의 「동명왕편」이다(1193, 고려 명종 23).

<15쪽 28번 아래 추가 해설>

21 - 유향소

21.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광조 일파의 건의로 폐지되었다.
- ②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③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 설립하였다.
- ④ 대사성 이하 췌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 ⑤ 매향(埋香)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정답> ②

'우부승지 김종직이 아뢰기를, 고려 태조는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공변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서 향리들의 불법을 규찰하게 하였으므로 간사한 향리가 저절로 없어서 5백 년간 풍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 조정에서는 이시애의 난* 이후 (가)이/가 혁파되자 간악한 향리들이 불의를 자행하여서 건국한 지 1백 년도 못 되어 풍속이 쇠퇴해졌습니다. ... 청컨대 (가)을/를 다시 설립하여 향풍(鄉風)을 규찰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기구'는 지방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구이자 악질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들이 조직한 자치 기구인 유향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유향소는 좌수(유향소의 장)와 별감(유향소의 차석)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함길도 토착 세력인 무신 이시애(?~1467)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킨 것은 세조 13년인 1467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정암 조광조(1482~1519) 일파의 건의로 폐지된 기구는 소격서이다(1518, 중종 13). 소격서는 도교 의식을 주관하던 기구였다.
- ③ 풍기 군수 신재(愼齋) 주세붕(1495~1554)이 처음 설립한 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다(1543, 중종 38).
- ④ 대사성 이하 췌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둔 기구는 성균관**이다. 대사성(大司成)은 정3품, 췌주[祭酒]는 종3품, 직강(直講)은 종5품이다.

**성균관 직제: 위 직제는 조선 초기의 것이고, 이후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성균관 직제는 지사(정2품, 겸관) 1인, 동지사(종2품, 겸관) 2인, 대사성(정3품) 1인, 사성(종3품) 2인, 사예(정4품) 3인, 직강(정5품) 4인, 전적(정6품) 13인, 박사(정7품) 3인, 학정(정8품) 3인, 학록(정9품) 3인, 학유(종9품) 3인을 두었고, 서리 10인을 배속시켰다.

- ⑤ 매향(埋香)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한 기구는 향도(香徒)이다. 향도는 삼국 시대에 처음 조직되었는데, 그때는 불교 신자들의 결사체로 석탑·불상·종 등을 조성하거나 법회 보시·매향과 같은 불사(佛事)를 행하였다. 그러다가 고려 말 이후부터는 향촌의 여러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2 - 절재[충익공] 김종서

22.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여진을 정벌하고 6진을 개척하였다.
- ②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 ③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 ④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 ⑤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였다.

정답> ①

생몰이 '1383년~1453년', 호는 절재(節齋)로 나와 있다. 이어 생애로 '태종 5년(1405) 문과에 급제함', '세종 17년(1435) 함길도 병마도절제사에 임명됨', '문종 2년(1452) 고려사절요를 찬술함', '단종 1년(1453) 계유정난 때 살해됨'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지혜와 용맹을 겸비하여 대호(大虎)라는 별호까지 충익공 김종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두만강 일대에 6군 개척). 김종서는 문종의 마지막 유명을 받아 12세의 어린 단종을 보필한 고명대신 중 한 명이었는데(당시 좌의정, 영의정 황보인·우의정 정분) 수양 대군(1417~1468)(이후 세조)이 단종 원년인 1453년 10월에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할 때 두 아들과 함께 집에서 격살되었다(1453.10.10).

김종서(1383~1453)가 여진을 정벌하고 두만강 일대에 6군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16년인 1434년부터이다. 그리고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는 이미 그 전 해인 1433년(세종 15)부터 최윤덕(1376~1445)에 의해 4군이 개척되고 있었다. 4군과 6진의 개척이 완성하기까지는 이후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오답 해설>

- ②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한 인물은 삼봉 정도전(1342~1398)이다(1394, 태조 3).
- ③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인물은 정암 조광조(1482~1519)이다(1519, 중종 14)(기묘사화).
- ④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조선 시대의 인물은 이종무(1360~1425)이다(1419, 세종 원년). 참고로 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여러 차례 토벌되었는데 고려 말인 창왕 원년(1389)에 박위(?~1398)에 의해 토벌된 적도 있다.
- ⑤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한 인물은 잠곡 김육(1580~1658)이다(1651, 효종 2)(전라도 연해 지역에 대동법이 시행된 것은 효종 9년인 1658년).

23 -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

23.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 ② 관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공인
- ③ 시사(詩社)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 ④ 장사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소리꾼
- ⑤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만상 임상옥이 인삼 무역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러게. 중국 상인들이 연행사를 따라오는 상인들에게 인삼을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인삼국을 차렸다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만상(灣商) 임상옥(1779~1855)'과 '인삼 무역', '연행사'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조선 후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이 유통된 것은 남북국 시대의 일이다(솔빈부는 발해의 지방 행정 구역 중 하나).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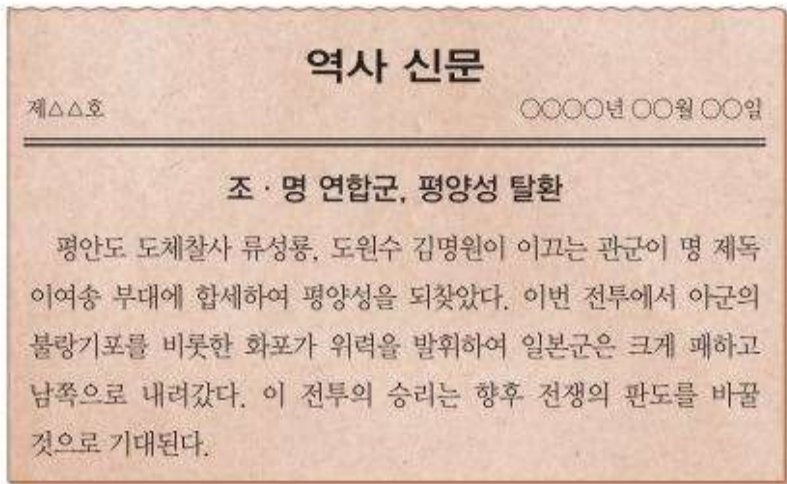
- ① 담배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② 관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한 것은 대동법이 시행된 17세기 이후(즉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시사(詩社)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이 활동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장사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소리꾼이 활동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참고로 판소리는 신재효(1812~1884)라는 인물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신재효는 전북 고창의 향리 출신으로 그가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한 것은 향리의 직책에서 물러난 1860년 이후로 추정된다.

<8번 오답 해설>

- ③ (신라 중대의 재상) 김대성(700~774)이 경주의 불국사 조성을 주도한 것은 경덕왕 10년인 751년의 일이다.
- ⑤ (재상) 거칠부(502~579)가 왕명에 의해 여러 문사(文士)를 모아 국사를 편찬한 것은 진흥왕 6년인 545년의 일이다.

24 - 임진왜란

24.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 ②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 ③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④ 신립이 탄금대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 ⑤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였다.

정답> ②

'조·명 연합군, 평양성 탈환'이라는 제목 아래 '평양도 도체찰사 류성룡, 도원수 김명원이 이끄는 관군이 명 제독 이여송 부대에 합세하여 평양성을 되찾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번 전투에서 아군의 불랑기포를 비롯한 화포가 위력을 발휘하여 일본군은 크게 패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 전투의 승리는 향후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선조 26년인 1593년 1월의 일이다(평양성 탈환)(임진왜란(1592.4~1598.11), 정유재란 포함).

전라도 순찰사 권율(1537~1599)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왜군)을 격퇴한 것은 1593년 2월의 일이다(행주 대첩)(1593.2.12).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린다. 행주산성은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산에 위치한다.

오답 해설>

- ① (동래부사) 송상현(1551~1592)이 동래성에서 항전하다 순절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2년(선조 25) 4월 15일의 일이다(같은 해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 발생).
- ③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이순신(1545~1598)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에게 대승을 거둔 것은 1592년 7월 8일의 일이다(한산도 대첩). 참고로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것은 이듬해인 1593년 8월의 일이다(이때 수군 통제사라는 새로운 직제 만들).
- ④ (삼도도순변사) 신립(1546~1592)이 (충북 충주의)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것은 1592년 4월 하순의 일이다 [1594.4.26~28].
- ⑤ 최윤덕(1376~1445)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인 이만주 부대를 정벌한 것은 세종 15년인 1433년의 일이다.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고 여언·자성·무창·우예 등 4군을 설치하였다. 최윤덕이 압록강 중류의 여진족을 정벌한 이 사건을 '파저강 토벌', '파저강 야인 정벌', '파저강 전투' 등으로 부른다(파저강은 일명 '동가강').

25 - 초정 박제가와 다산 정약용

25.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100리 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 ② (가) -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 ③ (나) -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④ (나) -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 ⑤ (가), (나) -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답> ④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역사 인물'이라는 제목 아래 가운데 말풍선에 '오늘은 실학자 두 분을 모시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들어 보겠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의 말풍선에는 '북학의를 저술한 저는 청의 문물 도입과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주장하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고, (나)의 말풍선에는 '저는 경세유표를 저술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 도입과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주장한 실학자는 초정 박제가(1750~1805)이고(1778, 정조 2), (유배 중이던 전남 강진에서) 경세유표를 저술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실학자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817, 순조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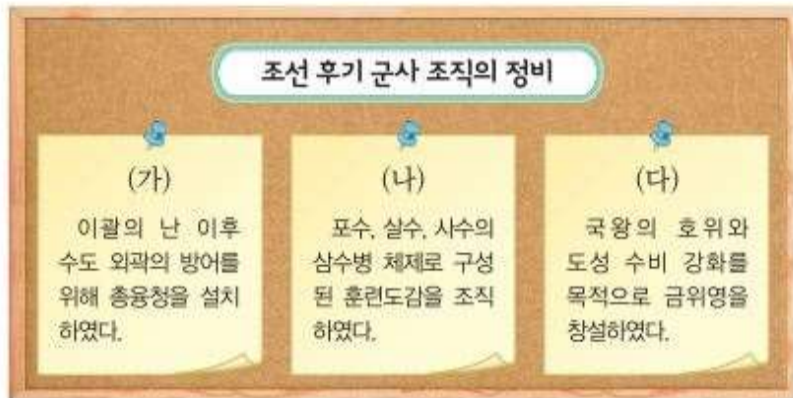
정약용은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즉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며,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공동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제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100리 척을 최초로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한 인물은 정상기(1678~1752)이다(1740년대). 참고로 조선 세조 9년(1463)에도 정척과 양성지 등에 의해 '동국지도'가 제작된 일이 있는 것처럼 흔히 '동국지도'라 함은 숙종 대까지는 전국을 그린 지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었고, 영조 대 이후부터는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 ② 광우록에서 토지[영업전]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한 인물은 성호 이익(1681~1763)이다(집필 시기 미상).
- ③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 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26 - 조선 후기 군사 조직의 정비

26.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정답> ③

'조선 후기 군사 조직의 정비'라는 제목 아래 (가)에 '이괄의 난 이후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 총융청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총융청과 수어청이 창설되어 도성을 방어한 것은 조선 인조 때의 일이다[각 1624(인조 2)/1626(인조 4)]. 이어 (나)에는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체제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조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에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에는 '국왕의 호위와 도성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금위영을 창설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수도 방위를 위하여 금위영이 설치된 것은 숙종 8년인 1682년의 일이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인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가 된다.

<16번 오답 해설>

⑤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 입상으로, 고려 초기의 불상이다(11세기경 제작 추정)(보물 제115호)*. 불두(佛頭)를 따라 제작하여 불신(佛身)이 새겨진 암벽 위에 엮는 형식은 고려 시대에 널리 유행한 형식이다. 전체 높이가 12.38m에 달하는 마애 대불로, 공식 명칭보다 '제비원 석불'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1년 11월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 번호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보 제 몇 호가 아니라 그냥 '국보', 보물 제 몇 호가 아니라 그냥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명칭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차후 하나씩 소개하기로 한다.

<17번 오답 해설>

②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교관으로) 파견된 교육 기관은 조선의 지방 교육 기관인 향교이다.

③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된 교육 기관 역시 조선의 향교이다.

⑤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를 (최초로) 시행하여 학문에 전념하게 한 것은 조선 세종 8년인 1426년의 일이다. 참고로 세조 집권 초에 사가독서제가 중단되었으나 세종 때 부활하였다(1476, 세종 7).

27 - 조선 정조 대의 사실

27.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② 명의 신종을 제사 지내는 만동묘가 설치되었다.
 ③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④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가 성균관에 건립되었다.
 ⑤ 비변사의 혁파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정답> ③

'이 그림은 화성능행도 8폭 중 일부로, (가)이/가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현릉원에 다녀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위엄을 갖춘 행렬의 장대함과 구경꾼들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화성능행도8곡병(華城陵幸圖八曲屏) 또는 화성행행도 병풍(華城行幸圖 屏風)이라 불리는 작품은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재위 1776-1800)가 부친인 사도 세자의 묘소에 행차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조선 후기 회화의 역량이 집약된 대형 병풍 그림이다(보물 제1430호)(제시된 그림은 그중 제7폭인 환어행렬도 중 일부).

*정조는 재위 19년이 되는 1795년 윤2월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1735~1816)를 모시고 수원 화성에 행차하여 사도 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참배하고 어머니의 회갑연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윤 2월 9일부터 8일 간의 을묘년 화성 원행).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로 기록하였다.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1624~1688)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것은 조선 현종 대(재위 1659-1674, 제18대)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② 명의 신종을 제사 지내는 만동묘(萬東廟)가 설치된 것은 숙종 30년인 1704년의 일이다(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 우암 송시열(1607~1689)이 죽을 때 그의 제자 권상하(1641~1721)에게 유언하여 지은 것이다. 참고로 만동묘는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직후인 1865년(고종 2년) 5월에 철폐되었다.

④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가 성균관에 건립된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⑤ 비변사의 혁파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정상화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다.

28 - 황사영 백서 사건

28.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사학(邪學) 죄인 황사영은 사족으로서 사술(邪術)에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였다. [그는] 의금부에서 체포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피신하였는데, 상복을 입고 성명을 바꾸거나 토굴에 숨어서 종적을 감춘지 반년이 지났다. 포청에서 은밀히 염탐하여 지금에야 제천 땅에서 붙잡았다. 그의 문서를 수색하던 중 백서를 찾았는데, 장차 북경의 천주당에 전하려고 한 것이었다.

(가)	(나)	(다)	(라)	(마)	
1728 이인좌의 난	1746 속대전 편찬	1791 신해 박해	1811 홍경래의 난	1834 헌종 즉위	1862 임술 농민 봉기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사학(邪學) 죄인 황석영은 사족으로서 사술(邪術)에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의금부에서 체포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피신하였는데, 상복을 입고 성명을 바꾸거나 토굴에 숨어서 종적을 감춘지 반년이 지났다. 포청에서 은밀히 염탐하여 지금에야 제천 땅에서 붙잡았다. 그의 문서를 수색하던 중 백서를 찾았는데, 장차 북경의 천주당에 전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른바 '황사영 백서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천주교인 황사영(1775~1801)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후 갖고 있다 체포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 9월의 일이다. 1801년 1월부터 시작된 신유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의 배론이라는 토기 굽는 마을로 피신하여 토굴에 숨어 지낸 황사영은 박해의 경과와 재건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이 62cm, 너비 38cm의 흰 비단에다 총 122행, 도합 12,384자를 검은 먹글씨로 깨알같이 썼으며, 이를 북경의 구베아 주교(?~1808)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황사영 백서 내용: 구체적으로는 1785년(정조 9) 이후의 조선 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신유박해의 상세한 전개 과정과 순교자들의 간단한 약전을 적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자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끝으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상의 상황을 연표에서 고르면, 신해박해가 일어난 1791년과 홍경래의 난이 발생한 1811년 사이 시기인 '(다) 시기'에 해당한다.

<20번 오답 해설>

③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한 역사서는 보각 국사 일연(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이다(1285, 고려 충렬왕 11). 『삼국유사』는 왕력편, 기이편, 흥법편 등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을 비롯한 민간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④ 고조선[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역사서는 『동국통감』이다(1485, 조선 성종 16). 즉 『동국통감』은 통사이자 편년체 사서이다.

29 - 신미양요

29.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1점]

이 척화비는 자연석에 비문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척화비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가) 이후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양 세력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 ①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 ②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에도 막부에 통신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⑤ 전개 과정에서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정답> ⑤

'이 척화비는 자연석에 비문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척화비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가) 이후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양 세력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사건'은 고종 8년인 1871년 5월에 발생한 신미양요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미양요 발생 후 서울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신미양요 당시 어재연 장군(진무중군)의 부대는 강화도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 싸웠다(1871.5, 신미양요). 어재연 장군(1823~1871)이 강화도로 급파되면서 데리고 간 부대는 훈련도감에서 2초(1초는 125명), 금위영과 어영청, 총융청 등에서 각군 1초씩을 뽑은 총 1,000여 명의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광성보 소속의 3개 돈대에 조정 배치되었다[각종 대포 143문도 동원, 어재연 장군 동생인 어재순(1826~1871)도 참전하여 싸우다 전사].

오답 해설>

①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된 사건으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들 수 있다[각 1882.8/1884.10.17~19(음력)「1884.12.4~6(양력)」]. 참고로 임오군란 때는 청군이 파견되어 개입한 경우이며 갑신정변 때는 한성[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이 개입한 경우이다.

② (강화도에 보관 중이던) 외규장각 의궤가 약탈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10월에 일어난 병인양요 때이다.

③ 조선은 광해군 원년인 1609년에 에도 막부와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부산에 왜관 설치). 그리고 이후 에도 막부의 통신사* 파견 요청을 받아들여 문물을 전하였다.

*통신사는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총 20회(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 이루어졌다.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서 통신사 일행이 방문한 곳마다 정치가나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반 무사를 비롯한 문인, 묵객, 서민들까지 통신사들에게 서화, 시문, 글씨 등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를 병풍, 회관(두루마리 그림), 판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널리 유행되었다. 한편, 통신사들은 국내로 돌아와 일본에서 겪은 견문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④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 2월에 진주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태 수습을 위해 환재 박규수(1807~1877)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30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조일 통상 장정

30.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4조 ……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나)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흉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에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 ① (가) -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가) -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 ③ (나) -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 ④ (나) -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였다.
- ⑤ (가), (나) -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정답> ③

(가)의 제4조에 '……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조약은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8월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임을 알 수 있다. 제4조는 유명한 조항으로, 이를 통해 조선은 중국 상인이 양화진을 비롯한 조선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나)의 제37관에는 '조선국에서 가뭄과 흉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에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방곡령 시행을 규정한 유명한 조항으로, 고종 20년인 1883년 7월 일본과 체결한 조일 통상 장정임을 알 수 있다.

조일 통상 장정의 체결로 조선은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제40관)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다(제42관). 최혜국 대우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제2조에 처음 규정된 것으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 ①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조약은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이다(1905.11.17).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1906년 2월의 일이다(1906.2.1).
- ②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한 조약은 고종 19년인 1882년 5월에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제5관에 '……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관세 자주권 규정).
- ④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한 조약은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고종 19) 8월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제물포 조약이다. 주된 내용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죄단을 파견한다는 것이다(각 제4관/제6관). 또 공사관 보호의 명분으로 일본 경비병을 상주시키는 내용도 들어갔다(제5관).
- ⑤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조약으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성 조약과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 조약이 있다[각 1885년(고종 22) 1월/1885년 4월].

31- 한성순보

31.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여권통문을 처음 보도하였다.
- ②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③ 의병 투쟁에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 ④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 ⑤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답> ⑤

'국가등록문화재'로 '1883년 박문국에서 창간된 근대 신문으로, 세계 정세를 폭넓게 전하고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은 한성순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한성순보는 근대적 신문의 효시로,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된 것은 1883년(고종 20) 10월의 일이다. 참고로 한성순보는 2012년 10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성순보는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오답 해설>

- 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이 발표된 것은 1898년 9월의 일이다(여성 운동).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운동 단체인 찬양회(贊襄會)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이 단체는 사실 통문을 먼저 돌린 직후 조직된 것이다. 찬양회는 양성원(養成院), 순성회(順成會), 찬양회(讚揚會) 등으로도 불렸다. 통문에서 '신체 수족 이목이 남녀간에 닮음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자는 병신 모양으로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남자의 절제를 받는가? 여학교를 세워 남녀평등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및 정치 참여권을 내용으로 하는 찬양회의 통문은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여학교 설립 운동과 여성의 계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이 되었다. 독립 협회가 이끈 만민 공동회의 자유 민권 운동에도 참가하였다.
- ②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신문으로는 대한매일신보와 황선신문, 제국신문을 들 수 있다. 이들 신문들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1907.2~1908.7).
- ③ 의병 투쟁에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이다(1904.7.18). 영국인 베델(1872~1909)과 함께 우강 양기탁(1871~1938)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 ④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행된 신문은 독립신문이다(1896.4.7). 언론계에서는 이를 기념해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지정하였다. 독립신문은 창간 이듬해인 1897년 1월부터 한글판[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분리하여 발행되었다.

32 - 동학 농민 운동

32.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 ② 농민군이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 ③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보은 집회가 개최되었다.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되었다.
- ⑤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정답> ①

속보로 '전주 화약 체결'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달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이 마침내 정부와 화약을 체결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농민군은 곧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 5월의 일이다(1894.5.8(음력)/1894.6.6(양력)).

남접과 북접이 (전북 완주 삼례에서 충남) 논산으로 집결하여 연합한 것은 1894년 10월의 일이다(1894.10.12). 참고로 9월 8일에 남접 지도자 전봉준과 김개남이 전북 김제 금구 원평에서 2차 기포를 결정하고 삼례에 집결할 것을 통문하였으며, 동학 교주 최시형이 9월 18일에 최종 무력 봉기를 선언하였다(동학 농민군 제2차 봉기).

오답 해설>

- ② 동학 농민군이 전라 감영군[관군]을 격파한 황토현 전투가 있었던 것은 1894년 4월 7일(이하 음력)의 일이다(1894.4.6~4.7)(정읍 관아 점령). 그리고 2주여 일 뒤에 동학 농민군은 장성 황룡촌에서 중앙 경군[관군]까지 격파한 후(황룡촌 전투)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각 1894.4.23/1894.4.27)(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
- ③ 동학 교조 최제우(1824~1864)의 신원을 요구하는 보은 집회가 개최된 것은 고종 30년인 1893년 3월의 일이다(보은 취회). 참고로 이때 8명의 대접주가 탄생[임명]하였다
- ④ 고부 농민 봉기의 수습을 위해 안핵사 이용태(1854~1922)가 파견된 것은 1894년 3월의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일처리로 동학 농민군의 원성을 사 결국 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 ⑤ 전봉준(1855~1895)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지금의 전북 정읍) 관아를 습격한 것은 1894년 1월의 일이다(1894.1.10)(고부 농민 봉기).

33 - 육영 공원

33.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7재라는 전문 강좌가 개설되었다.
- ②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교되었다.
- ③ 교육 입국 조서에 근거하여 세워졌다.
- ④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두었다.
- ⑤ 헐버트, 길모어 등이 교사로 초빙되었다.

정답> ⑤

'근대 교육 기관'이라는 주제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 '이 학교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관립 교육 기관이야'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젊은 관리가 소속된 좌원과 명문가의 자제를 선발한 우원으로 구성되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주요 과목으로 영어, 산학, 지리 등이 있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근대 교육 기관은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에 설립된 육영 공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4.1). 육영 공원은 근대적 공립 학교로 선발 인원은 35명이고, 지원 자격은 좌원의 경우 '7품 이하 젊은 현직 관리', 우원의 경우 '15~20세의 양반 자제'였다. 영어, 수학, 자연 과학 등을 교과목으로 하였으며 헐버트, 길모어, 병커 등의 미국인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국자감 내에) 7재라는 전문 강좌가 개설된 것은 고려 예종 4년인 1109년의 일이다. 관학 진흥책과 관련된 것으로 예종은 이 외에도 일종의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하였으며(1119, 예종 14), 청연각과 보문각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1116, 예종 11).
- ②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교된 학교는 기독교계, 특히 장로교계 학교들이다. 일제는 강점기 말인 1938년 2월부터 신사 참배를 본격적으로 강요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북장로교계 학교 8개교, 남장로교계 10개교가 1938년에 폐교되었다(북장로교계 학교인 송실 전문 학교는 이때 완전히 문을 닫음). 참고로 193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7회 장로파 총회에서는 결국 일제의 신사 참배 요구에 굴복하여 "우리는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인 것을 자각한다. 따라서 신사 참배를 출선수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에 참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고종 32년인 1895년 2월에 반포된 교육입국 조서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육 기관은 한성 사범 학교와 한성 외국어 학교이다(각 1895.4/1895.5).

<21쪽 40번 아래 추가 해설>

34 - 죽천 박정양

34.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초대 주미 공사인 (가)은/는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 활동을 펼친 후 귀국하여 미속습유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 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 ②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
- ③ 인재 양성을 위해 오산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④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⑤ 독립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정답> ⑤

'초대 주미 공사 특별전'이라는 제목 아래 '초대 주미 공사인 (가)은/는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 활동을 펼친 후 귀국하여 미속습유를 집필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일본내무성시찰기'와 '미속습유' 등을 지은 죽천 박정양(1841~1905)을 가리킬 수 있다.

박정양은 1887년 9월에 초대 주미 전권 공사로 임명되었으나 조선을 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청의 반대로 지체하다 같은 해 11월에서야 (청의 공사 파견 허락을 받고)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미국에는 1888년 1월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귀국 후 1889년 8월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박정양은 이처럼 초대 주미 공사로 부임하고 퇴임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미행일기』 남겼다(1888.1.1~11.27). 또 주미 전권 공사로 임명되어 귀국하기까지 견문하고 활동한 바를 기록해 둔 「해상일기초」와 「미행일기」, 「종환일기」 등과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에서 입수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일종의 미국 견문기인 『미속습유』*를 집필하였다(소환 명령을 받고 귀국을 준비하던 1888년 11월 전후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

*『미속습유』: 박정양이 현진 전권 공사의 입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미국의 문물과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한 본격 미국 견문기로 총 90개 항목, 4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보다 1년 앞서 탈고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견문기이기도 하다.

박정양은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던 1898년 10월 당시 참정대신(參政大臣)의 자격으로 독립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현의 6조, (의회식) 중추원 신관제].

오답 해설>

- 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한 인물은 도산 안창호(1878~1938)이다(1913.5).
- ②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온 인물은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도원 김홍집(1842~1896)이다. 김홍집은 귀국 후 고종에게 복명하면서 『조선책략』을 바쳤다(1880.8).
- **『조선책략』: 청의 주일 참사관 황준헌(1848~1905)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청의 초대 주일 공사인 하여장(1838~1891)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당시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35 - 광무개혁

3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한국사 특강

우리 학회에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구본신참에 입각하여 추진한 정책을 주제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강좌 내용 ▣

제1강 (가)

제2강 대한국 국제 반포와 황제 중심 정치 구조

제3강 지계 발급과 근대적 토지 소유권

●기간: 2023년 10월 ○○일~○○일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
●장소: △△ 연구원

- ①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 설립
- ② 개혁 방향을 제시한 흥범 14조 반포
- ③ 통리기무아문 설치와 개화 정책 추진
- ④ 원수부 창설과 황제의 군 통수권 강화
- ⑤ 23부로의 지방 제도 개편과 지방관 권한 축소

정답> ④

'한국사 특강'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학회에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구본신참에 입각하여 추진한 정책을 주제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좌 내용으로 '제1강 (가)', '제2강 대한국 국제 반포와 황제 중심 정치 구조', '제3강 지계 발급과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대한 제국 설립 후 추진된 광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황제 직속의 최고 군 통수 기관인) 원수부를 창설하여 황제의 군 통수권을 강화시킨 것은 광무 3년(고종 36)인 1899년 6월의 일이다(~1904.9).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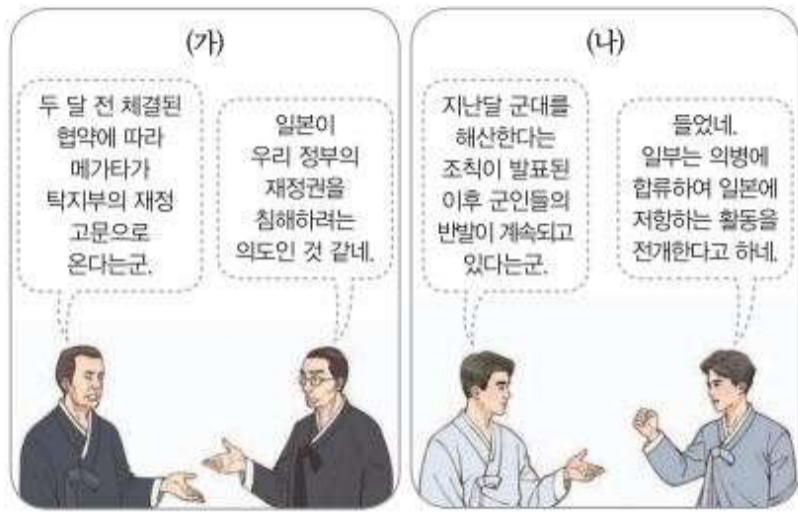
- ①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8월의 일이다(통변 학교). 최초의 관립 외국어 학교이다. 1886년 9월 육영 공원이 세워진 후 문을 닫았다.
- ② 흥범 14조를 반포하여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1월의 일이다(1895.1.7). 제2차 갑오개혁을 이끄는 방침이 되었다(1894.12~1895.8).
- ③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 ⑤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34번 오답 해설>

-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황준헌에게 『조선책략』을 작성하게 하였다(조선에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정책 권장).
- ③ 인재 양성을 위해 (평북 정주에) 오산 학교를 설립한 인물은 남강 이승훈(1864~1930)이다(1907.12).
- ④ (학부에)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은 한 헌샘 주시경(1876~1914)이다(1907.7).

36- 헤이그 특사 파견

3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테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 ②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③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 ④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⑤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정답> ⑤

(가)의 왼쪽 말풍선에 '두 달 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메가타가 탁지부의 재정 고문으로 온다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인 것 같네'라는 답변이 나와 있다.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1853~1926)가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된 것은 1904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른 것이다(1904.8.22). 이때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더햄 화이트) 스티븐스(1851~1908)도 초빙되었는데 친일적인 행동을 계속 하다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에서 장인환(1876~1930)에 의해 피살되었다[당시 전명운(1884~1947)도 가세, '스티븐스 저격 사건'].

(나)의 왼쪽 말풍선에 '지난달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치가 발표된 이후 군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들었네. 일부는 의병에 합류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네'라는 답변이 나와 있다.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된 것은 1907년 8월 1일로, 같은 해 7월 24일에 강요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의 부수 비밀 각서에 따른 것이었다(협약을 체결하게 된 발단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임). 이때 시위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1869~1907)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된 것은 1907년 4월경*의 일이다. 고종이 을사늑약 강요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 것이다(헤이그 특사 사건)[헤이그 회의가 개최된 것은 6월 15일(~10월 18일까지 개최)]. 이상설, 이준, 이위종 3인의 특사가 헤이그에 도착한 것은 회의가 이미 시작된 직후인 6월 25일로, 특사들은 7월까지 활동하였다(7월 14일 이준 열사 순국).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은 결국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 (대한 제국) 군대 해산으로 이어졌다(각 1907.7.20./1907.7.24/1907.8.1).

*이때는 이준이 한성(서울)을 떠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만난 때이다. 이상설은 사실 1년 전인 1906년 4월에 이미 대한 제국을 떠나 북간도 용정촌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두 특사는 6월 중순경 시베리아 철도 편으로 당시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지금의 상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주로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과 합류하였다.

<21쪽 40번 아래 추가 해설>

37- 의열단

37.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판결문

피고: 오복영 외 1인
 주문: 피고 두 명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제1. 피고 오복영은 이전부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1. 대정 11년(1922) 11월 중 김상옥, 안홍한 등이 조선 독립자금 강탈을 목적으로 권총, 불온문서 등을 가지고 조선에 오는 것을 알고 천진에서 여비 40원을 조달함으로써 동인 등으로 하여금 조선으로 들어오게 하고
 2. 대정 12년(1923) 8월 초순 (가) 단원으로 활약할 목적으로 피고 이영주의 권유에 의해 동 단에 가입하고
 3. 이어서 피고 이영주와 함께 (가) 단장 김원봉 및 단원 유우근의 지휘 하에 피고 두 명은 조선 내 관리를 암살하고 주요 관아, 공서를 폭파함으로써 민심의 동요를 초래하고 ……

- 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②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 ③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 ④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 ⑤ 이룡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정답> ③

'판결문'으로 피고가 '오복영 외 1인으로 '피고 두 명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나와 있다. 이어 판결 이유로 '제1. 피고 오복영은 이전부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면서 '1. 대정 11년(1922) 11월 중 김상옥, 안홍한 등이 조선 독립 자금 강탈을 목적으로 권총, 불온문서 등을 가지고 조선에 오는 것을 알고 천진에서 여비 40원을 조달함으로써 동인 등으로 하여금 조선으로 들어오게 하고' '2. 대정 12년(1923) 8월 초순 (가) 단원으로 활약할 목적으로 피고 이영주의 권유에 의해 동 단에 가입하고' '3. 이어서 피고 이영주와 함께 (가) 단장 김원봉 및 단원 유우근의 지휘 하에 피고 두 명은 조선 내 관리를 암살하고 주요 관아, 공서를 폭파함으로써 민심의 동요를 초래하고 ……'라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1의열단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1892~1926)가 (조선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1926년 12월의 일이다(1926.12.28). 거사 후 의사는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과 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한 일본 경감을 사살한 후 자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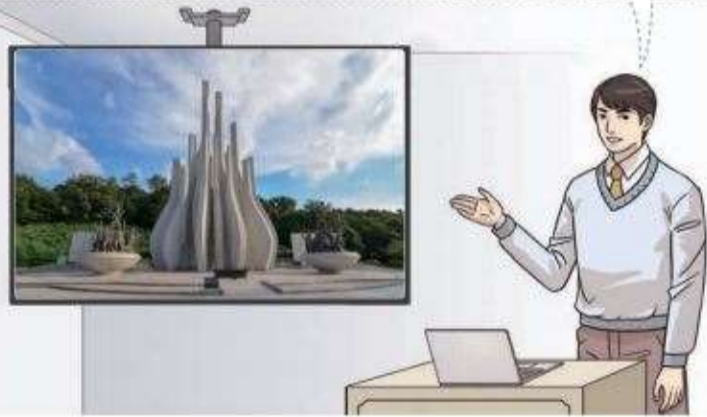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서울에서 조직된 항일 단체인 보민회이다(1904.7.13). 보민회(保民會)라고도 불렀다.
- ②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은 단체는 신민회이다(1911.9).
- ④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한 단체는 돈헌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한 (대한) 독립 의군부이다(1912.9~1913.5).
- ⑤ 만주 안동[중국명 단둥]의 무역 선박 회사인 이룡양행[아일랜드인 조지 루이스 쇼(1880~1943) 경영]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통신) 연락을 취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5)(이후 7월부터 연통제 실시).

38- 광주 학생 항일 운동

38.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이것은 1929년 11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시작된 이 운동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당시 민족 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고, 전국의 많은 학교가 동맹 휴학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 기념탑은 학생들의 단결된 의지를 타오르는 햇불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보기>

- ㄱ.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확립 등을 요구하였다.
- ㄴ.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 ㄷ.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 ㄹ.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이것은 1929년 11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시작된 이 운동을 기념하는 탑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시 민족 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고, 전국의 많은 학교가 동맹 휴학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 기념탑은 학생들의 단결된 의지를 타오르는 햇불로 형상화한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운동'은 1929년 11월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30.3). 사진 속 기념탑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다.

ㄱ.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학생들은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확립 등을 요구하였다. '감금된 학생을 탈환하자', '총독 폭압 정치 절대 반대', '교육에 경찰 간섭 반대', '치안 유지법을 철폐하라' 등을 요구하였다.

ㄴ.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은 대구에서 김광제(1866~1920), 서상돈(1850~1913) 등의 발의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ㄷ.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 중앙 본부는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1929.11). 그리고 신간회 중앙 본부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계기로 삼아 언론 및 종교 세력, 청년 및 노동 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의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조병옥, 이관용, 허헌 등 다수의 간부들이 체포되었다(1929.12.13. 이른바 '민중 대회 사건').

ㄹ.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운동은 1919년 3월에 일어난 '3·1 운동'이다.

이상의 <보기>에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관련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39 - 한국 독립군

39.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대전자령은 태평령이라고도 하는데, 일본군이 서남부의 왕징현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지점이었다. 대전자령의 양쪽은 험준한 절벽과 울창한 산림 지대로 되어 있어 적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이 전투에 (가)의 주력 부대 500여 명, 차이시잉(柴世榮)이 거느리는 중국 의용군인 길림구국군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 한중 연합군은 계곡 양편 산기슭에 구축되어 있는 참호 속에 미리 매복·대기하여 일본군 습격 준비를 마쳤다.

-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

- ①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 ②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③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④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 ⑤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정답> ⑤

'대전자령은 태평령이라고도 하는데, 일본군이 서남부의 왕징현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지점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전자령의 양쪽은 험준한 절벽과 울창한 산림 지대로 되어 있어 적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이 전투에 (가)의 주력 부대 500여 명, 차이시잉(柴世榮)이 거느리는 중국 의용군인 길림구국군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 한중 연합군은 계곡 양편 산기슭에 구축되어 있는 참호 속에 미리 매복·대기하여 일본군 습격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는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이다. 대전자령 전투는 총사령인 백산 지청천(1888~1957)이 이끈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이다(1933.7)(한·중 연합 작전). 대전자령 전투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함께 우리나라 항일 무장 투쟁사 3대 대첩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투이기도 하다.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1931.10). 참고로 한·중 연합 작전을 펼친 또다른 부대인 조선 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1929.5).

오답 해설>

①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다.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으로 1943년 8월 10여 명의 비전투 대원들(인면전구공작대)을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하였다(한·영 군사 상호 협정서 체결). 이들은 인도 캘커타에서 특수 공작전과 대적 선전 방송과 관련된 훈련을 받고 1944년 2월부터 그와 관련된 활동을 펼쳤다.

② 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부대는 대한 독립 군단(총재 서일)이다(1920.12). 대한 독립 군단은 1921년 6월 러시아령 자유시[알렉세예브스크]에서 참변을 당한 후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자유시 참변, 1921.6.28).

③ 중국 관내(關內)*인 우한의 한커우[한구]**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 의용대이다(1938.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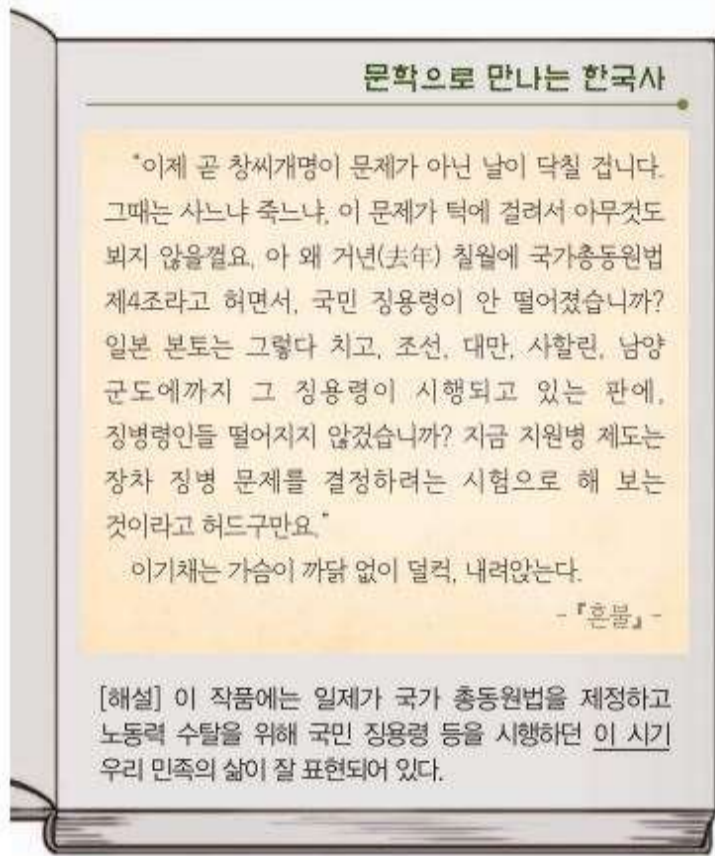
*관내(關內)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우한은 중국 후베이성[호북성]의 성도(省都)이다(중국어 명칭임). 그리고 우한[武漢]은 우창(武昌), 한커우(漢口), 한양(漢陽)의 세 도시를 함께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1949년에 합쳐짐).

<25쪽 47번 아래 추가 해설>

40 - 일제 강점기 말의 사실

40.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 ②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 ③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④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 ⑤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정답> ⑤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혼불』*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다. 해설에 '이 작품에는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고 노동력 수탈을 위해 국민 징용령 등을 시행하던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삶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제 곧 창씨개명이 문제가 아닌 날이 닥칠 겁니다.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턱에 걸려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걸요. 아 왜 거년(去年) 칠월에 국가총동원법 제4조라고 하면서, 국민 징용령이 안 떨어졌습니까? 일본 본토는 그렇다 치고, 조선, 대만, 사할린, 남양 군도에까지 그 징용령이 시행되고 있는 판에, 징병령인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원병 제도는 장차 징병 문제를 결정하려는 시험으로 해 보는 것이라고 허드구만요." / 이기채는 가슴이 까닭 없이 덜컥, 내려앉는다. - 『혼불』 -) 국민 징용령이 생긴 것은 1939년 7월이고 조선에도 적용된 것은 같은 해 10월의 일이다. 이후 1944년에 이르러 강제 징용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이 조선에 적용된 것은 1939년 10월부터이다. 그런데 징용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기존 동원 체계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제는 조선에서의 전면 시행은 유보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1944년 9월에 이르러 징용 대상자(17세 이상 50세 미만) 중 20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연령층에 대한 일반 징용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선인을 대량 동원해 일본 본토를 비롯한 사할린·중국·남방 등지의 광산·토목 공사장·군사 시설 공사장·군수 공장 등에 투입하였다.

*『혼불』은 소설가 최명희(1947~1998)가 1980년 4월부터 1996년 12월 까지 17년 동안 쓴 대하소설이다. 수많은 순우리말 단어가 담긴 작품으로 국문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고(1938.4.1), 시행된 것은 같은 해 5월 5일부터이다.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7년 10월부터의 일이다. 아동용과 성인용 두 종류가 있었다.

오답 해설>

①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이 제정·공포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조선 총독부 제령 제13호)(4월 1일부터 시행)(~1920.3).

② (일제가)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한 것은 1910년대이다. 일제는 1910년대 내내 헌병 경찰을 기반으로 한 무단 통치 정책을 펼쳤다.

***헌병 경찰제: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직후부터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1919년 3·1 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실시, '무단 통치기'). 하지만 법령상으로 헌병 경찰제는 이미 강제 병탄 이전에 도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 주차(駐紮) 헌병에 관한 건'을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까지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병탄 직전에는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게 하고,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헌병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헌병 경찰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총독부로 이어져 헌병 경찰은 일제 무단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

③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④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된 것은 1927년 9월의 일이다.

<33번 오답 해설>

④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둔 교육 기관은 조선 시대 성균관과 향교이다. 명륜당은 강학 공간이고, 대성전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제향 공간[전각, 건축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를 중앙에 모시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 4성(聖)을 좌우에, 또 10철(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모셨다. 대성전은 일명 '공자묘, 즉 문묘(文廟)의 정전'이다. 학생들은 대성전의 공자 신위에 먼저 술을 올린 후, 명륜당에 가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

<36번 오답 해설>

오답 해설>

① 데라우치(1852~1919)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한 것은 한일 병탄 직후인 1910년 10월의 일이다(1910.10.1).

②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것은 1908년 1월의 일이다(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은 1907년 12월에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되었으며(1907.12.6).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다(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 포함)(전 병력을 24개 진으로 하는 12도 창의대진소로 편성). 그리고 이듬해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지만(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 즉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고 후퇴하고 말았다.

③ 대한 제국이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과 감옥 사무의 처리권)을 박탈당한 것은 1909년 7월의 일이다(1909.7.12).

④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7월의 일이다(상권 수호 운동). 같은 해 12월에 수구파 정부가 독립 협회를 탄압할 때 함께 해산당하였다.

41 - 천도교

41.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기획 전시

방정환이 꿈꾼 어린이를 위한 나라

우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동학을 계승한 종교인 (가) 계열의 방정환 등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한 잡지 『어린이』의 전시와 함께 여러 체험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2023. 00. 00. ~ 00. 00.
- 장소: △△ 박물관 특별 전시실
- 전시 자료 소개



▲ 『어린이』 제7권 제3호



▲ 『어린이』 제9권 제1호

- ①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②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 ③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힘썼다.
- ⑤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방정환이 꿈꾼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는 제목 아래 '우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동학을 계승한 종교인 (가) 계열의 방정환 등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한 잡지 『어린이』의 전시와 함께 여러 체험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 자료로 『어린이』제7권 제3호와 제9권 제1호가 사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소파 방정환(1899~1931)이 주도한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1923.5), 잡지 어린이도 발간하였다(1923.3). 따라서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천도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선 종교는 천도교이다(1906.6).

오답 해설>

- ① 만해 한용운(1879~1944) 등이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를 주장한 종교는 불교이다(1911.6)(조선 불교 유신회).
- ③ (교조인) 박중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펼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6.4)(1918~1919 간척 사업).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힘쓴 종교는 개신교 [감리교]이다. 배재 학당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1858~1902)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1885.8).
- ⑤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종교는 천주교이다(1919.4). 의민단은 일종의 민간인이 조직한 의병과 같은 단체로, 국내 진공(進攻)을 목표로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도 연계하여 활동하였으며,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였다(자유시 참변 시 해산).

42 - 일제 강점기의 민족 문화

4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한국 근대사 강의실

전체 글보기 | 이미지 무어보기 | 카페 태그 보기 | 카페 상인다

- 전체 글보기
- 카테고리 선택하기
- 공지사항
- 카페 기획
- 강의 계획서
- 과제 제출방
- Q&A 게시판

조별 과제 안내

일제 강점기에 민족 문화를 수호하고자 노력한 인물의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번호	제목
1	1조 - 이윤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다
2	2조 - 최현배, 조선어 연구회 회원으로 한글을 연구하다
3	3조 - 신채호,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사를 연재하다
4	4조 - (가)

- ① 정인보,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다
- ② 장지연,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싣다
- ③ 유길준,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다
- ④ 최익현, 지부복궐척화익소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다
- ⑤ 신현,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기다

정답> ①

'조별 과제'로 '일제 강점기에 민족 문화를 수호하고자 노력한 인물의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조에 '이윤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다'가, 2조에는 '최현배, 조선어 연구회 회원으로 한글을 연구하다'가, 3조에는 '신채호,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사를 연재하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위당 정인보(1893~1950)이다. 조선학 운동은 1934에서 1938년까지 전개되었다(일제 강점기에 속하는 1930년대).

오답 해설>

- ② 위암 장지연(1864~1921)이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의 강요에 반발하여)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은 것은 1905년 11월의 일이다(1905.11.20). 당시 장지연은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다.
- ③ 구당 유길준(1856~1914)이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뒤)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의 일이다.
- ④ 면암 최익현(1833~1907)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체결이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전 임진왜란 직전에 지부상소를 올린 중봉 조헌(1544~1592)의 예를 따라] 도끼를 가지고 광화문 앞에 가 상소한 것은 고종 13년인 1876년 1월의 일이다[지부복궐척화익소(병자지부<복궐>소(丙子持斧<伏闕>疏), 1876.1.22)(최익현은 이 상소로 말미암아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1879년에 해배).
- ⑤ 위당 신현(1810~1884)이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긴 것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1876년경의 일이다(추정). 신현은 조약 체결 직후부터 협상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초고를 작성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신현의 초고를 정서한 것으로 보인다(학계 연구 결과, 상·하 2권). 신현은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이었다.

43 - 일본 도쿄에서의 민족 운동

43. 밑줄 그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1923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희생된 조선인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추도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공격해 온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조직한 자경단 등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습니다.



- ①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 ②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건립하였다.
- ③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④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 ⑤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였다.

정답> ③

'이것은 1923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희생된 조선인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추도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공격해 온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조직한 자경단 등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관동]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그와 관련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919년 2월 8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된 곳이 일본 도쿄[동경]이다.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재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이를 주도하였다(1918.12). 2·8 독립 선언은 3·1 운동을 촉발시킨 배경 중 하나이다.

*간토[관동] 지방: 일본 혼슈의 동부에 있는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도쿄도의 1도 6현을 가리킨다.

오답 해설>

- ① (이회영, 이상룡 등의 망명 애국지사들이)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한 곳은 서간도[남만주] 삼원보이다(1911.4).
- ② [보재 이상설(1870~1917)을 중심으로 한 망명 애국지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한 곳은 북간도[동만주](용정)이다(1906년 8월경).
- ④ [박용만(1881~1928)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한 곳은 미주인 하와이 지역이다(1914.6).
- ⑤ (일종의 망명 정부인)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한 곳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이다(1914년 상반기 수립 추정). 보재 이상설(1870~1917)이 대한 광복군 정도령(正都領)을, 성재 이동휘(1873~1936)가 부도령을 맡았다.

44 - 몽양 여운형

4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일보

제△△호 2023년 ○○월 ○○일

'몽양 (가) 장례식 만장' 117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1918년 중국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고 해방 후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한 (가) 선생의 마지막 길에 내걸린 만장(輓章)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만장이란 망자를 추모하는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만든 깃발로, 1947년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각계각층이 애도하는 만장이 내걸렸다.

이 만장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 후 좌우대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평가를 담은 자료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①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②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③ 권업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④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 ⑤ 백산 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정답> ①

'몽양 (가) 장례식 만장' 117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라는 제목 아래 '1918년 중국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고 해방 후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한 (가) 선생의 마지막 길에 내걸린 만장(輓章)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만장이란 망자를 추모하는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만든 깃발로, 1947년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각계각층이 애도하는 만장이 내걸렸다. 이 만장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 후 좌우대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평가를 담은 자료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몽양 여운형(1886~194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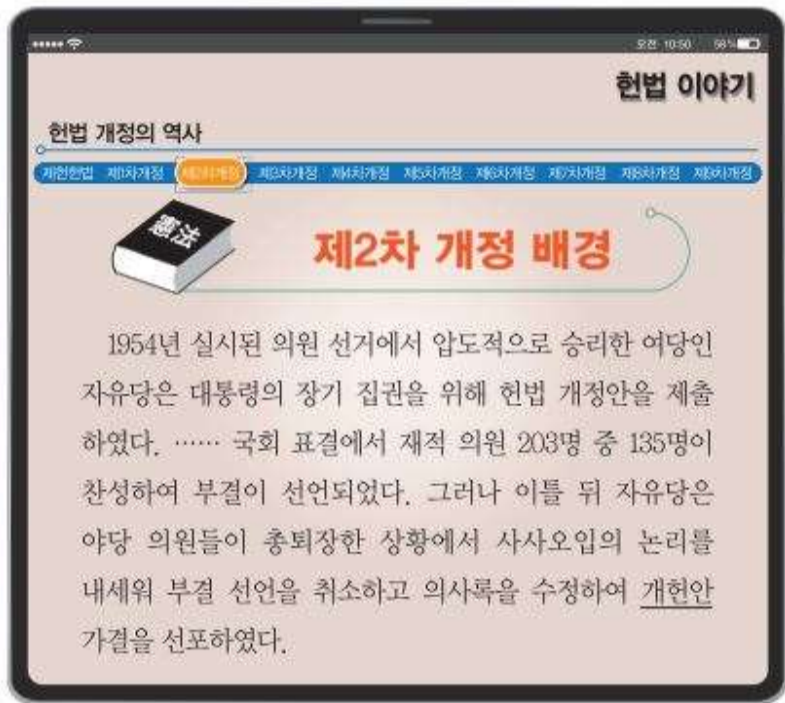
여운형은 8·15 광복 전체인 1944년 8월에 서울[경성]에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일제에 대항한 독립 투쟁 과정을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20.12).
- ③ 연해주에서 권업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인물은 최재형(1860~1920)이다(1911.12)(1912년 4월 권업신문 창간). 최재형은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으로서, 1918년 6월에 열린 제2회 전로 한족 대표 회의에서 이동휘(1873~1935)와 함께 명예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1920년 일본군이 자행한 '4월 참변'으로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하였다.
- ④ 대한 광복회를 (대구에서)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한 인물은 박상진(1884~1921)이다(1915.7~1918.1). 대한 광복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1918년 1월에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었으며, 체포된 박상진은 사형 선고를 받고 1921년 8월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대한 광복회 조직원 일부는 조직 와해 후 만주로 망명하여 의열단 등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 ⑤ 백산 상회를 (부산에)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인물은 백산 안희제(1885~1943)이다(1914.9). 독립운동 진영 간의 연락 업무도 맡았다. 1919년 5월에 백산 무역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45 -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

45. 밑줄 그은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 ③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 ④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⑤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정답> ⑤

'헌법 개정의 역사'로 '제2차 개정 배경'이라는 제목 아래 '1954년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를 뒤 자유당은 야당 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부결 선언을 취소하고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제2차 개헌, 1954년 11월에 공포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사사오입 개헌 제55조 첫 문장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부칙에는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즉 개헌 당시의 대통령[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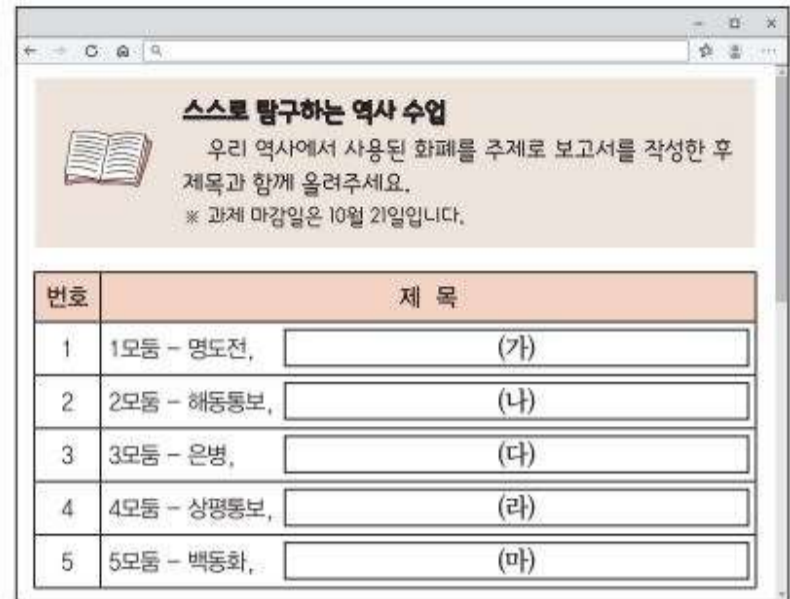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개헌안은 1972년 12월에 공포된 제7차 개헌, 즉 '유신 헌법'을 가리킨다. 제39조에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개헌안은 1987년 10월에 공포된 제9차 개헌에서이다. 제67조 1항에 대통령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내용이,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③ 대통령이 국회 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던 개헌안은 제7차 개헌에서이다. 제40조 1항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선거한다'는 내용이, 제40조 2항에는 '제1항의 국회 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에 붙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5쪽 47번 아래 추가 해설>

46 -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화폐

46.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중국 연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준다
- ② (나) - 의천의 건의로 화폐가 주조되다
- ③ (다) - 경복궁 중건을 위해 제작되다
- ④ (라) - 법화로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다
- ⑤ (마) - 전환국에서 화폐가 발행되다

정답> ③

'스스로 탐구하는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화폐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올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모둠에는 명도전이, 2모둠에는 해동통보가, 3모둠에는 은병이, 4모둠에는 상평통보가, 5모둠에는 백동화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할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제작되어 유통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경복궁 중건(1865~1868)을 위해 제작된 화폐는 당백전이다(고종 3년인 1866년에서 고종 4년인 1867년까지 유통).

오답 해설>

- ① 명도전은 초기 철기 시대에 사용된 화폐로, 중국 전국 시대의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사용된 화폐이기도 하다. 손칼 모양의 청동 화폐로 '명(明)자'가 장식되어 있어 '명도전(明刀錢)'이라 부른다. 참고로 중국 진(秦)나라 때 사용된 화폐[동화(銅貨)]인 반량전도 있다. '반량(半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 ② 해동통보는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건의로 주조된 화폐가 맞다.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이 고려 숙종 2년인 1097년에 만들어졌으며, 해동통보가 숙종 7년인 1102년부터 발행되었다. 숙종은 해동통보의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위 관료를 비롯해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각지의 상점에서도 사용하게 하였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 ④ 상평통보가 법화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부터이다(조선 후기). 이후 상평통보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 ⑤ 전환국이 설치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 그리고 백동화가 전환국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 29년인 1892년부터의 일이다. 당시 액면가 2전 5푼의 동전이였다. 이후 전환국은 제1차 한일 협약(1904.8)으로 들어온 일본인 재정 고문[탁지부 고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1904년 11월 폐지되고 말았다(백동화 주조도 정지).

47 - 시대별 노비 해방의 역사

[47~48]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적 등 6명이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를 불러 모아 모의하기를, “국가에서 경인년·계사년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재상이 어찌 종자가 있으랴. …… 그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면 모두 공경 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왕 7년, 노비를 안검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도록 명하자, 노비로 주인을 배반한 자가 매우 많아지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행해졌다.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였다. 대목왕후가 이를 간절히 간언하였으나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1.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 과부가 재가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1.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라)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는 귀천이 없고 내외 없이 고루 균등하게 적자(赤子)로 여겨야 하는데, 노(奴)와 비(婢)라고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 36,974명과 시노비 29,093명을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 문서를 거두어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47.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③

(가)에 '만적 등 6명이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를 불러 모아 모의하기를, 국가에서 경인년·계사년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재상이 어찌 종자가 있으랴. …… 그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면 모두 공경 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무신 집권자 최충헌(집권 1196-1219)의 노비인 만적(?~1198)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다 발각된 사실을 가리킨다(1198, 고려 신종 원년).

(나)에는 '왕 7년, 노비를 안검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도록 명하자, 노비로 주인을 배반한 자가 매우 많아지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행해졌다.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였다. 대목 왕후가 이를 간절히 간언하였으나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7년인 956년의 일이다. 노비안검법은 양민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대목 왕후 황보씨(920년대 후반?~?)는 태조 왕건과 제4비 신정 왕태후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광종의 이복누이이자 첫째 부인이다.

(다)에는 '1.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 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 과부가 재가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1.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1차 갑오개혁 때 이루어진 개혁안임을 알 수 있다(1894.6.25~12.17)[6월 28일(양력 7월 30일) 의결된 군국기무처 의안(12개) 중 일부].

(라)에는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는 귀천이 없이 고루 균등하게 적자(赤子)로 여겨야 하는데, 노(奴)와 비(婢)라고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 36,974명과 시노비 29,093명을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 문서를 거두어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순조 원년인 1801년에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를 해방(종량)한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총 6만 6,067명)(1801.1.28).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라)-(다)'가 된다.

<39번 오답 해설>

④ 흥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부대는 북로군정서군이다(1920.10). 이들 독립군 연합 부대는 일본군과 10여 차례 교전을 벌여 승리하였다. 보통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른다.

<45번 오답 해설>

④ 사사오입 개헌은 발췌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제53조 1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접 선거 방식(직선제)을 규정하고 있다('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48 - 노비 해방사를 활용한 탐구 활동

48. (가)~(라)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가) - 무신 집권기에 발생한 하층민의 봉기에 대해 알아본다.
 ㄴ. (나) -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 제도를 살펴본다.
 ㄷ. (다) - 균역법이 시행되는 배경을 파악한다.
 ㄹ. (라) -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계기를 조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자료 해설, 47번 참조>

ㄱ. 만적의 난은 노비의 난이므로, 무신 집권기에 발생한 하층민의 봉기 중 일부에 해당한다.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다.

ㄴ. 노비안검법은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따라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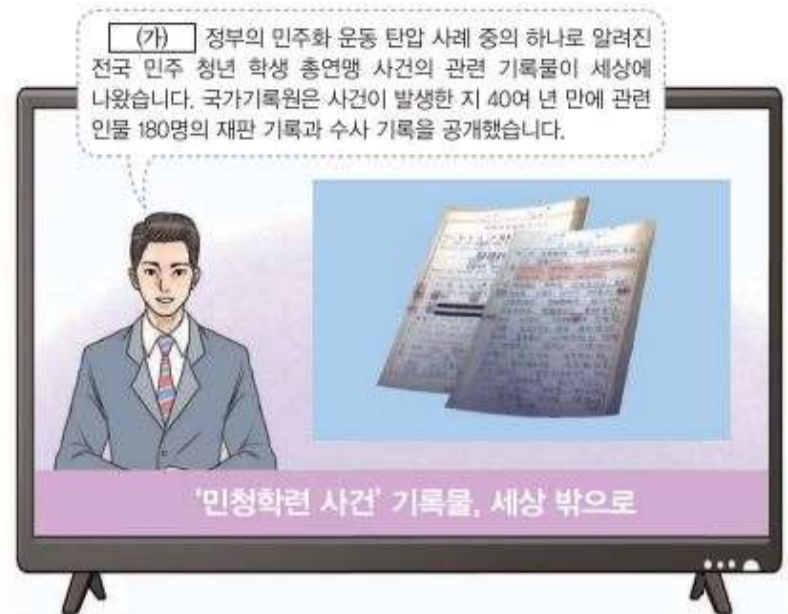
ㄷ. 균역법이 시행된 것은 조선 영조 25년인 1750년의 일이다. 균역법은 양민의 균역 부담을 덜고자 (균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제도이다(기존의 매년 2필을 매년 1필로 줄임). (다)의 신분 개혁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ㄹ.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 진주 농민 봉기 발생 직후 안핵사로 파견된 환재 박규수(1807~1877)의 건의로 설치된 것이며,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라)의 신분[노비] 개혁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상에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ㄱ과 ㄴ' 뿐이다.

49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49.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②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③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④ 장기 독재에 저항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⑤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는 4·13 호헌 조치가 선언되었다.

정답> ④

'민청학련 사건' 기록물, 세상 밖으로'라는 제목 아래 '(가) 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 사례 중의 하나로 알려진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의 관련 기록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 년 만에 관련 인물 180명의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72년 12월 유신 헌법을 공포한 후 그에 반대하는 재야 단체 및 학생들의 운동이 거세지자 운동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 긴급 조치 1, 2호를 공포하면서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 3월, "반체제 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이라는 불법 단체가 불순 세력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긴급 조치 제4호를 발동하였다. 이후 천여 명의 위반자를 조사하여 그 중 180명을 구속·기소하였다(이른바 '민청학련 사건'). 참고로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 운동 탄압 사건"이라고 발표하였고, 2009년 9월 사법부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장기 독재에 저항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의 일이다(1976.3.1).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재야인사들이 발표한 선언으로,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 ①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9년 4월의 일이다(1959.4.30).
 ②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직후의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에 하야를 표명하고 다음 날인 27일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경무대를 떠났다.
 ③ (학원 자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 도중 (명지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강경대(1972~1991)가 백골단[사복을 한 시위 진압 경찰 부대]의 무차별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4월의 일이다(1991.4.26).

<27쪽 50번 아래 추가 해설>

50 -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

50.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진작부터 꼭 한 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참여 정부 와서 첫 삼을 뺐기 때문에 지금 개성 공단이 매출액의 증가 속도, 그리고 근로자의 증가 속도 같은 것이 눈부시지요. 경제적으로 공단이 성공하고, 그것이 남북 관계에서 평화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함께 번영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 되면 앞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① 남북한이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②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③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 ④ 7·4 남북 공동 성명 실천을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답> ⑤

'진작부터 꼭 한 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참여 정부 와서 첫 삼을 뺐기 때문에 지금 개성 공단이 매출액의 증가 속도, 그리고 근로자의 증가 속도 같은 것이 눈부시지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경제적으로 공단이 성공하고, 그것이 남북 관계에서 평화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함께 번영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 되면 앞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참여 정부', '개성 공단' 등의 용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노무현 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재직 2003.2-2008.2, 제16대)이 2007년 10월 방북하여 제2차 남북 정상 회담(10.2~4)을 한 후 귀국하면서 개성 공단에 들러 한 연설임을 알 수 있다(2007.10.4)(이른바 '개성 공단 방문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과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한 후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남북한이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
- ②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한 것 역시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7월의 일이다(1988.7.7).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 이른바 '7·7 선언'에는 남북 동포의 상호 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 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적극 추진, 남북 교역과 문화 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선언을 계기로 노태우 정부는 이후 공산권과의 국교 수립 및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③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킨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3). 당시 남북 간 50명 규모였으며,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때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④ 7·4 남북 공동 성명 실천을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49번 오답 해설>

⑤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는 4·13 호헌 조치가 선언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4월의 일이다(1987.4.13).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직선제 개헌]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호헌 조치는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6월 민주 항쟁 발발).

- 이 상 -